

碩 士 學 位 論 文

字의 傳統과 現代的 活用に 관한 研究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漢文教育專攻

宋 美 花

指導教授 宋 秉 烈

2013年 2月

碩 士 學 位 論 文

字의 傳統과 現代的 活用に 관한 研究

指導教授 宋 秉 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2月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漢 文 教 育 專 攻

宋 美 花

宋 美 花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인

審査委員 \_\_\_\_\_ ①인

審査委員 \_\_\_\_\_ ①인

2013年 2月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목 차

I. 序論 .....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2. 先行 研究 檢討 .....	4
3. 研究 方法 .....	6
II. 字의 歷史와 作字 方法 .....	9
1. 字의 由來와 使用 .....	9
2. 字의 創作 過程 .....	15
3. 字 創作의 實際와 그 傾向 .....	18
III. 字辭와 字說의 性格과 意味 .....	31
1. 字辭의 性格과 意味 .....	31
2. 字說의 性格과 意味 .....	33
3. 字辭와 字說의 演變 .....	35
IV. 字의 現代的 活用 .....	41
1. 傳統冠禮·笄禮와 現行 成年式 比較 .....	41
2. 冠禮·笄禮에서 字의 活用方案 .....	45
3. 字辭와 字說의 現代的 活用 .....	51
V. 結論 .....	58
【參考文獻】 .....	62
<부록1> 作字傾向에 따른 분류(교남과방록 권2 인조1603-영조1775) .....	65
<부록2> 교남과방록 권3 字가 수록된 합격자 명단(정조1776-고종1906) .....	79
<부록3> 字에 사용된 단어 빈도순 .....	84
<부록4> 2012년 9월 2일 구계서원에서 올린 冠禮 字辭 .....	91
【영문초록】 .....	93

## 표 목 차

<표1> 『嶠南科榜錄』 권2 합격자명단 .....	19
<표2> 作字 傾向 分析 .....	20
<표3> 意同의 實例 .....	21
<표4> 同字의 實例 .....	22
<표5> 進就의 實例 .....	22
<표6> 謙虛의 實例 .....	23
<표7> 經在의 實例 .....	25
<표8> 序列, 美稱, 虛辭, 指稱 사용 경향 .....	26
<표9> 字에 사용하는 글자빈도 .....	27

# I. 序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한국인에게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부르는 명칭의 의미 외에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석 달째에 조상·부모가 이름을 지어 준다. 이 이름은 공식으로 부르는 이름이므로 벼슬을 하여 조정애 나아갔을 때나 공식적인 곳에서만 썼고, 어릴 때는 兒名을 따로 불렀으며 스무 살에 冠禮를 하면 이름을 높이는데 걸맞은 字를 지어준다.<sup>1)</sup> 그러므로 선조들은 자녀의 이름에 삶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作名했고 그 이름을 평생의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였다. 옛 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이름을 매우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며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랑스럽게 보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름을 높이는 관념이 널리 퍼지게 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게 되자, 남자는 20살, 여자는 15살에 冠禮와 笄禮를 통하여 이름대신 부를 수 있는 字를 지어주었다.

『禮記』冠義에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신 근본이고 字는 冠禮 할 때 손님에게 받은 글인 까닭에 임금과 부형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쓰고 남에게 이르러서는 字를 부른다. 이것은 字로서 그 이름을 공경하기 때문이다.”<sup>2)</sup>라고 한 것을 보면 옛날에는 조상이 지어 준 이름은 누구나 함부로 부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불명예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존중하였다. 때문에 친구나 어른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이름대신에 字를 지어준 것이다.

字는 敬名思想 때문에 생겨난 제 2의 호칭이다. 冠禮를 할 때 字를 지은

---

1) 金長生, 『家禮輯覽』 “潛溪宋氏曰, 古之人, 生子三月而名, 年二十加布於其首, 始字之, 字之所以尊其名也.” 李東厚, 2007, 『霞洞常變』 通禮 및 冠·笄禮, p137. 재인용.

2) 『禮記』, 『冠義』, 疏 “名者, 受於父母爲質, 字者, 受於賓爲文. 故, 君父之前, 稱名, 至於他人, 稱字, 是字敬其名.”

이유를 밝히고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한 인생의 좌표와 평생 동안 실천할 덕목을 담아 字辭나 字說을 지어주거나 冠禮를 마친 이후에라도 字의 의미를 字辭나 字說로 써서 주었다. 남자는 冠禮 時에 여자는 笄禮 時에 字를 짓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반드시 이것을 지킨 것은 아니다. 형제들의 字를 한꺼번에 짓기도 하고 추후에 字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字辭와 字說은 冠禮를 올려주는 賓이 지어주기도 했으나 스승이나 유명한 문인에게 부탁하여 字에 함유된 덕목의 실천을 권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字는 유교적 인격체를 담아내는 호칭이며 字를 통해서 인격적인 완성을 추구하고 시대의 요구나 시대가 지향하는 목표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字를 지어주는 절차는 冠禮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冠禮를 하고 字를 지어줌으로써 성인이 되는 것은 곧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전통 성년식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성년식은 성년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유형을 기르기 위해서는 成人이 되는 사회의 구성원을 대우하고 삶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儀禮가 필요하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冠禮와 笄禮를 유교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인 전인적 인간,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儀禮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그 근본 원인을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가정은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 가족에서 해오던 역할 분담에 따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모의 역할이 양육자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산업구조는 생계유지나 경제적 향상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으며 이들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므로 바람직한 가정교육,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공격

성이 높고 목표의식이 없으며 왕따,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며 상처를 조금만 받아도 저항력이 없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되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년기의 중간 단계로써, 신체적, 정서적, 지적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신체적 변화를 출발점으로 하는 이러한 급속한 변화들에 적응하면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혼란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 나아가 한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의식과 가치관과 행동 관습을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엄격한 가부장제도 아래의 가정교육이 철저하였으며 가정교육을 통하여 부모 세대의 의식, 가치관, 행동 그리고 생활습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통한 仁·義·禮·智를 체득한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었으며 효를 도덕윤리의 기본으로 강조한 부자관계가 집안 문중에 대한 긍지를 갖게 했으며 효를 지키기 위하여 극기하고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전통을 숭상하고 효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시대에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할 인간상을 고찰하여 바람직한 역할이나 규범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冠禮를 통하여 이름대신 사용할 字를 지어주고 字의 의미를 字辭나 字說로써 주었기 때문에 선비들의 字는 각 사람의 인생관 및 그들이 생활했던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며 字辭나 字說은 이러한 字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수행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지었다. 그러므로 이를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아 분류해 본다면 字를 사용하는 사대부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字의 사용 이유나 경향 등에 관한 연구와 祝辭와 字說에 담긴 의미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字의 의미나 字에 사용한 단어를 분석하거나 字辭나 字說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청소년의 인성교육이나 가정교육과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字에 사용된 단



어를 분석하고 字辭나 字說의 내용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이상적인 선비 상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傳統冠禮와 笄禮의 근본정신과 현대 성년식을 비교하고 字와 字辭나 字說에 담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傳統冠禮와 傳統笄禮를 현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 2. 先行 研究 檢討

字에 대한 연구는 강현규(1970)의 「한국인의 字와 雅號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신용호(1976)의 「선대사류의 字와 號 연구」, 『선현들의 字와 號』(강현규, 신용호, 1997)에 관한 연구 이후에 더 이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강현규·신용호(1997)는 字의 유래, 作字 방법을 밝히고 근세 조선시대의 字와 號사용에 대한 시대별 고찰을 위하여 한국인명대사전 부록 한국인명연표에 수록된 인물 중 1401년에서 1600년까지 활약한 인물 1019명을 조사 대상으로 연구하였다.<sup>3)</sup>

「祝辭와 字說을 통해 본 冠禮」(이은영, 2006)는 冠禮를 할 때 축사와 字說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 조선중기 冠禮를 행하였던 사대부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되고 구현되는 양상을 밝혀 冠禮의 사회적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sup>4)</sup>

字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字를 지어주는 儀禮인 冠禮에 관한 先行 研究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冠禮에 관한 先行 研究도 함께 검토하였다. 冠禮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冠禮 복식에 관한 연구이다.<sup>5)</sup> 왕세자 복식이나 사관례 복식의

3) 강현규·신용호, 1997, 『선현들의 字와 號』, 진통문화연구회, pp.1-298.

4) 이은영, 2006, 「축사와 字說을 통해 본 冠禮 :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pp.69-96.

5) 김혜경, 2001, 「한국 관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

김혜경, 2008, 「전통 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22.

김선숙, 2008, 「관례의식 및 복식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평생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09.

구조와 의미를 연구하고 예서에 나타나있는 冠禮 복식을 설명하거나 복식에 내재된 의미를 밝힌 연구이다. 둘째, 冠禮의 절차와 의미에 관한 연구이다.<sup>6)</sup> 셋째, 전통성년례와 현대성년례를 비교하고 현대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려는 연구<sup>7)</sup>이다.

이희재(2000)는 「한국의 전통 冠禮와 성인의 의미」에서 冠禮의 형식을 살펴보면서 전통 사회에서 성인의 의미는 유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인을 말하며 현대에 冠禮를 통해 성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의례로 정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sup>8)</sup>

이문주(2002)는 「성인식으로서의 冠禮의 구조와 의미 분석」을 통해 유교 문화권에서 행해진 성인식으로서의 冠禮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절차에 담겨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朱子家禮』를 기본으로 하고 『儀禮』, 『禮記』, 『書儀』 및 조선시대의 여러 예서를 통해 밝히면서 만 20세를 성년의 나이로 규정하여 일정한 나이만 되면 자동적으로 성인이 될 뿐 가정과 학교와 사회 어느 곳에서도 성인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식 성년례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였다.<sup>9)</sup>

- 
- 김소현, 2010,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관례복식 연구」, 『복식』, 한국복식학회, pp.51-70.  
 남후선, 2002, 「士冠禮服飾의 形態와 意味」, 『유교문화연구』, 韓國儒敎學會, pp.51-82.  
 문영표, 2004,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의 복식연구 : 관례와 혼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193.  
 이윤정, 2002, 「관례의 절차·복식에 내재된 의미」,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139.
- 6) 김상보, 1989, 「韓國 傳統冠禮의 研究」, 嶺南大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pp.1-90.  
 김시황, 1999, 「韓國 冠禮 竿禮 研究」, 『東洋禮學』 제3집, 東洋禮學會, pp.1-23.  
 도민재, 2003, 「儒敎 冠禮의 사회적 의미」, 『유교문화연구』 제6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pp.1-20.  
 이희재, 2000, 「韓國의 傳統冠禮와 成人의 意味」, 『東洋禮學』 제5집, 東洋禮學會, pp.137-153.  
 이문주, 2002, 「성인식으로서의 冠禮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韓國儒敎學會, pp.25-50.
- 7) 김정신·조희진, 2000,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모형」, 『논문집』 暎園專門大學, pp.405-412.  
 신상구, 2010,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문왕로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학회, pp.69-99.  
 이은영, 2006, 「축사와 字說을 통해 본 冠禮 :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pp.69-96.
- 8) 이희재, 2000, pp.137-153.  
 9) 이문주, 2002, pp.25-50.

김시덕(2009)은 「한국 일생 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에서 유교식 일상 의례인 관혼상제가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변용되어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으며 冠禮는 복잡한 형식으로 인해 주로 상류층에서 행해졌고 민간에서는 혼례의 한 부분으로 행해져 간소화 되었지만 그 전통은 꾸준히 이어져왔다고 한다.<sup>10)</sup>

송재용(2010)은 「목재 일기와 미암 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혼상제례」에서 16세기 冠禮를 행한 기록이 목재 일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미암 일기에 있으며 柳希春의 손자 光先의 冠禮를 행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관만 씌우는 등 약식으로 행했던 것 같아 16세기 冠禮는 사대부가에서도 약식으로 행했던 것으로 보고<sup>11)</sup>하고 있으며 백두현(2006)은 「한글편지에 나타난 冠禮와 혼례」에서 玄風郭氏諺簡에 나타난 冠禮에 대한 글을 소개하며 17세기 초 冠禮를 베풀던 모습을 소개<sup>12)</sup>하고 있다.

성년례의 정착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희선 등(2002)은 성인기에 달한 당사자들을 통하여 현재 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년식의 실태와 문제의식, 희망하는 성년식의 형태 등을 조사하여 성년식을 건전한 가족문화와 사회 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3)</sup>

### 3. 研究 方法

지금까지 字와 字辭 및 字說, 冠禮에 관한 연구는 문학적인 연구나 복식사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冠禮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연구나 冠禮의 정착을 위한 연구도 계속 되어왔지만 字의 뜻이나 字辭, 字說에 담긴 의미를

---

10) 김시덕, 2009, 「한국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 제39집, pp.69-96.

11) 송재용, 2010,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혼상제례」, 『문학논집』, 제30집, pp.303-320.

12) 백두현, 2006, 「한글편지에 나타난 冠禮와 혼례」, 『선비문화』, 제9권, pp.57-64.

13) 조희선등, 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제5호, 생활과학연구소, pp.255-268.

살려서 冠禮와 筭禮를 통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I장에 字의 유래와 字를 지어주게 된 연유를 문집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고 영남지방 과거 문과합격자들의 字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嶺南科榜錄』<sup>14)</sup>에 기록된 字를 분석하여 조선중기 이후의 字의 사용양상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作字 경향을 밝힌 선행연구는 있으나 字에 사용한 단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선중기 이후의 作字 경향과 字에 사용한 단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1623년(인조1)이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 字의 사용추이를 1600년까지 조사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영남지방의 유교적 덕목을 밝혀 조선시대 선비들이 字의 뜻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 이상적인 선비상을 밝혀보려고 한다.

III장에서는 字辭와 字說의 성격을 정의하고 문집의 기록을 중심으로 字辭와 字說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冠禮는 고려시대부터 행하여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字辭와 字說로 남겨진 것은 고려 말 사대부들의 문집에 다수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려 말부터 개화기까지의 字辭와 字說 가운데 3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3편 중 한편의 字說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정립하고 유교적 이념을 내세워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조선초기의 것이고 한편은 주자가례가 널리 정착되고 예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가례를 주자가례대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왜란과 호란의 큰 피해를 복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변동이 있는 시기인 조선후기, 나머지 한편은 한말 개화기의 字辭 중에서 골랐다. 字辭와 字說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IV장에서는 傳統 冠禮·筭禮와 현대 성년식을 비교하여 字의 현대적 활용

---

14) 1392년부터 1906년에 이르는 嶺南 지역의 文武科 및 생원 진사 시험의 합격자, 그리고 음서로 관직에 나아간 자의 명단을 기록한 책. 1938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9책이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은 신분사회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의례는 신분에 의한 차이보다는 빈부에 의한 차이로 나타난다. 傳統冠禮가 冠禮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품이나 의복의 준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당시 사대부들도 字와 字辭나 字說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전통冠禮와 笄禮를 실제로 올린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여 字의 전통을 傳統冠禮의 절차에 포함시켜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Ⅱ. 字의 歷史와 作字 方法

字에 대한 역사는 신용호·강현규의 『선현들의 字와 號』의 글이 매우 중요하며 字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밝혀 놓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字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作字 傾向을 밝힌 것은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字의 유래와 字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字의 창작 과정, 字의 창작 실제와 그 경향을 밝혀 보려고 한다.

### 1. 字의 由來와 使用

『禮記』에 “남자는 20세에 冠禮를 행하고 字를 짓고, 여자가 혼인을 약속하면 笄禮를 행하고 字를 짓는다.”<sup>15)</sup>라고 하였다. 안정복(1712-1791)은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字가 있다. 예에 ‘이미 冠禮를 행하고 字를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공경하려는 것이다. 字는 육(育)자의 뜻이다. 이름을 인하여 생기므로 字라고 한다.”<sup>16)</sup>는 글을 남겼다.

우리 조상들은 敬名思想으로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겨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고 성인의 이름은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께서만 부를 수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별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시이므로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존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려면 감히 그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으므로 대화시에나 글을 쓸 때에 존장의 이름에 이르게 되면 ‘피휘(避諱)某(아무개)’라 하였다.<sup>17)</sup>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되자 누구나 보편적으로 부를 수 있는 다른 칭호가 필요하게 되어 冠禮를 할 때 字를 짓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관념 때문에 成人이 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字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15) 『禮記』권1, 「曲禮」상, “男子二十冠而字, 女子許嫁笄而字.”

16)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7, 『순암선생문집』, 제12권 잡저, p.314.

17) 신용호, 강현규공저, 1997, p.14.

字는 성년례인 冠禮를 행할 때 성년이 된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을 포함하였으며 이름의 뜻을 보충하거나 해석하고 서로 표리가 되므로 대부분 근엄하고 실천할 덕목이 함유된 글자로 지었다고 한다.

孟子가 孔子의 字를 부른 例는 離婁章 下에 “仲尼 不爲己甚者”(중니께서 너무 심한 것을 하지 않으셨다)하였고, 또 같은 章에 “徐子曰仲尼亟稱於水”(서자가 말하기를 중니께서 자주 물을 언급하셨다)라는 말이 있고, 또 공자 손자인 자사가 증용에 “仲尼曰君子 中庸 小人 反中庸”이라 하였다. 『論語』 子張篇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子貢이 “叔孫武叔, 毀仲尼. 子貢曰, 無以爲也. 仲尼不可毀也. ~ 仲尼 日月也. 無得而踰焉.”(숙손무숙이 중니를 헐뜯자 자공이 말하기를 그러지 마라. 중니는 헐뜯을 수 없다. ~ 중니는 해와 달이어서 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던 사례들이 있다.<sup>18)</sup>

위의 글을 통하여 옛사람들이 字를 부르는 경우에는 존장자나 평배사이 는 字를 불러 존경이나 친근감을 나타내었으나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신의 字를 부르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長生의 『家禮輯覽』에 따르면 “후세에는 字 외에도 또 별칭을 더했는데, 과연 禮의 뜻이겠는가? 손자가 으레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字를 부르는 것은 『儀禮』에 실려 있는 그것과 같다. 제자가 스승에 대해 으레 字를 부르는 것은 맹자가 중니를 부른 그것과 같으니, 이는 낮은 것이 아니다. 중세에 와서 제부(아버지 형제)와 제조(할아버지 형제)는 字를 불렀다. 무릇 높은 사람이라도 할아버지를 넘지 못했으며, 아버지와 스승은 그(할아버지) 다음이다. 모든 字를 숭상하고, 대개 字를 짓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다. 아첨하고 비굴한 풍습이 승하여 세상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때부터 제 친구에게도 감히 字를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호라. 세상이 옛날만 못하구나. 그대가 어찌 홀로 이리하리오!”<sup>19)</sup>라고 하며 字

18) 李東厚, 2007, 『霞洞常變』 通禮 및 冠·笄禮, p.139.

19) 金長生 『家禮輯覽』 卷之二 「冠禮條」 字冠者 “後世於字之外, 又加別稱, 果禮意乎? 孫於祖 禰例稱字, 如儀禮所載是也. 弟子於師例稱字, 如孟子稱仲尼是也. 非惟此降. 及

를 높이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탕씨가 말하기를 사람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편지를 낼 때는 모두 부모가 지어 주신 이름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릇되게 字를 부른다. 그렇지 않다면 공자 같은 성인도 어찌해서 평생토록 스스로 본인의 이름인 구(丘)를 언급하고, 일찍이 당신 스스로 중니(仲尼)라고 부르지 않았다.”<sup>20)</sup>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字를 스스로는 쓰거나 부르지 않은 듯하다. 편지를 쓴다면 그 글 끝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옳다. 또한 남을 부를 때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구이면 字를 부르고, 높은 사람의 字는 부를 수 없다.

중국에서는 字가 주대부터 송나라 초까지 가장 보편적인 성인의 칭호로 사용되었다. 자사가 지었다는 『中庸』에 ‘仲尼曰 君子中庸小人反中庸’에서 조부인 공자의 字(중니)를 그대로 쓴 것이나 공자의 제자 자유의 문인들이 지었다는 『禮記』禮運篇에도 ‘昔者仲尼與於賓’을 보면 字를 제자들이나 자손들도 부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字의 사용이 宋대부터 보편적인 호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여 손아랫사람은 윗사람의 字까지 諱하게 되었고 그 대신 號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칭호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字는 중국문화 특히 유학의 전래와 같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극히 일부 사람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 말부터 지어 쓰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字를 사용한 사람은 金仁間(629-694)으로 그의 字는 仁壽이다.<sup>22)</sup> 고려시대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가 발달한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까지 약 1세기 동안 字의 사용이 일반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무신란 이후부터 몽고침략 시기까지 곧 12세기 후반부터 1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약 1세기 간에는 국가가 혼란기에 처하여 사회의 분위

---

中世，有字其諸 父諸祖者。夫人之尊者，莫逾於祖若父師又其次焉。尚皆字 不避盖字之，乃尊之也。自諂諛卑佞之習，勝天下之人瞞瞞焉，不敢字其友者亦有之。嗚呼 世之不古。若子寧獨此哉。”

20) 李宜朝, 『家禮增解』「冠禮條」, “湯氏曰 凡人 終身大人言語及發書簡, 皆不可棄父母命名, 而謬稱表德. 不然 孔聖何以終身稱丘, 未嘗自稱仲尼也.”

21) 신용호, 강헌규공저, 1997, p.17.

22) 신용호, 강헌규공저, 1997, p.57.



기가 冠禮를 행하고 字를 지을 겨를이 없었고 또한 사회의 주도권을 문신이 아닌 무신들이 장악하여 이들이 字를 짓는데 관심이 없어 字의 사용이 감소되었다가 몽고와 강화하고 문신들이 국정의 주도권을 되찾은 13세기 후반부터 字를 쓰는 사람들이 차츰 증가하였다. 14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성리학이 도입되고 주문공의 가례가 관혼상제 의식의 준거가 되면서 字의 사용은 더욱 보편화되었다.<sup>23)</sup>

고려말 목은 이색(1328-1396)의 牧隱文藁에 실려 있는 字說에 의하면 “여흥의 민자복이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제가 성균관 유생에 보충되어 뽑혔을 당시에 선생께서 大司成으로 계시면서 저에게 子復이라는 字를 지어주셨습니다.”<sup>24)</sup>라는 기록으로 보아 冠禮를 하지 않고 字를 지어준 것을 알 수 있으며 “과거에 내 이름이 瑀였을 적에 선생께서 나에게 溫叔이라는 字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 寓로 이름을 고쳤으니, 선생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sup>25)</sup>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름을 고치고 다시 字를 고치는 예도 볼 수 있다. “대개 친구의 字를 지어주는 것은 예이다.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sup>26)</sup>라는 글을 통해서 친구의 字를 지어준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집에 字說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 말부터 이다.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문인인 李穡, 李穀, 權近, 卞季良 등의 문집에는 남에게 字를 지어주고 함께 지어주었다는 字說이 상당수 전해내려 오지만 冠禮와 관련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름과 함께 字를 보유하는 유교적 전통이 수용되고 있으나 冠禮를 통해 字를 지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冠禮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조선중기에는 冠禮를 하면서 字說을 지어 준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字辭에 다음과 같이 이른다. “네가 이미 冠禮를 마치었고 예의가 다 갖추

23) 신용호, 강헌규공저, p.30.

24) 牧隱文藁卷之十 “驪興閔子復來曰, 安仁之選補成均生也. 先生爲大司成, 字之曰子復.”

25) 牧隱文藁卷之十 “昔予也名瑀, 子嘗以溫叔字我矣. 余今也更之以寓, 願子之終惠焉.”

26) 『牧隱文藁』卷之五, 「忠原判官 李君及字 說」 “朋友字之盖禮也. 余其敢辭.”

27) 이은영, 2006, p.85.

어졌다. 字를 밝히고 이름을 공경하여 너의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라. 仁이란 사람을 뜻하니, 오직 어질어야 능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두려워하고 매우 조심하고 한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라. 안으로 살피어서 병이 되지 아니하여야만 마땅히 큰 복이 될 것이다. 길이 보존하여 받들어라. 그래서 ‘너를 子仁甫’(또는 次仁)라 字를 붙인다.”<sup>28)</sup>

옛날엔 남자들은 갓을 쓰고 字를 사용하였다. 字 또한 사람 중에 成人의 호칭이다. 그렇기 때문에 字는 때로 이름보다 소중한 것이다. 우리 아이 석표는 처음에 석추라고 이름 지었다. 내가 그 아이의 字를 運元이라고 지어 주었고, 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字는 그대로 두었다.<sup>29)</sup>

내가 이제 冠禮를 하니, 나는 너의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 너를 위해 염려하나 너 또한 네 몸을 염려하고 있느냐? 감히 노인인 내가 字를 지어 너에게 주노라.<sup>30)</sup>

위의 세 편의 글은 권시(炭翁 權認 : 1604-1672)가 남긴 유아관례의(惟兒冠禮儀)에 아들 惟가 冠禮를 할 때 지어준 字와 字辭이며 그 다음은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아들 李錫杓에게 字를 지어준 기록이다. 세 번째 글은 장현광(旅軒 張顯光 1554-1637)이 손자에게 冠禮를 올려주면서 字說을 써 주었다는 기록의 일부이다.

위 글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字辭를 지어 주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冠禮에 字說을 지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조선중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冠禮를 하고 字와 字辭나 字說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지은 『養兒錄』에 의하면 손자의 兒名이 숙길

28) 『炭翁集』 卷十「惟兒冠禮儀」, “字辭曰 惟汝既冠, 禮儀既備. 昭字欽名, 用彰爾美. 仁者人也. 惟仁克人. 戰兢夙夜 恕于終身, 內省不疚, 宜之于嘏. 保永受之, 曰子仁甫.”

29) 李夏坤(1677-1724), 『頭陀草』 冊十六. 雜著, 「錫杓字說」, “古者, 男子冠而字. 字者亦人之成人之號也. 然則字或重於名歟! 兒子錫杓, 始名錫樞. 余字之曰運元, 後改以 今名而字則仍之.”

30) 『旅軒先生續集』, 卷之四 雜著 「孫錄冠說」, “汝其冠矣, 我爲耄祖, 爲汝慮焉, 汝亦能慮汝身乎? 敢發耄戒以與之.”

인데 속길은 14살이 되자 아명을 버리고 守封이라는 이름과 景茂라는 字를 받았고 그리고 16살이 된 1566년 정월 15일 冠禮를 치르고 상투를 틀었다고 기록하였다.<sup>31)</sup>

아래 글은 이황(李滉, 1501-1570)선생께서 마흔 살에 얻은 첫 손자 몽아(蒙阿)에게 14살이 되었을 때 안도(安道)라는 이름과 字를 지어주었다는 기록이다.

몽아(퇴계 손자)가 점점 장성하게 되었으니 매번 兒名으로 부를 수는 없다. 지금 좋은 이름을 지으면 字는 따라 지을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는 점차 성인의 책임이 있을 터인데, 義로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손을 아름답게 키우고자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극한 소망이다. 다만 애정에 끌려 가르치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모를 심지 않고 익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어찌 옳다고 하겠느냐? 전에 보니 네가 아 이에게 애정이 넘쳐 엄하지 못하기에 이야기 하는 것이다.<sup>32)</sup>

신용호·강현규(1997)는 1401년부터 1500년까지 활약한 사대부 중 70%가 字를 사용하였고 16세기가 되면 典籍에 이름이 남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전원(97%)이 字를 가지고 있으므로 17세기 이후의 추세는 17세기 이전과 類似하리라고 보고하고 있다.<sup>33)</sup>

본 연구에서는 『嶠南科榜錄』에 기록된 문과합격자를 대상으로 字를 조사하였다. 인조(1603)에서 개화기까지 문과에 합격한 합격자수는 985명인데 字를 사용한 합격자는 545명으로 55%가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용호·강현규(1997)의 근세조선시대의 사류들의 字 사용에 관한 조사 대상은 한국인명사전 부록 한국인물연표에 수록된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방 과거 합격자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字 사용에서 큰 차이가

31) 국사편찬위원회, 2009,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주), p.36.

32) 『退溪集』「寄子儻」, “蒙兒漸至長大, 不可每呼兒名. 今命以嘉名, 字則當隨後. 但從此當漸有成人之責, 不知稍可教以義方否. 欲子孫之佳, 人之至願. 而願多徇情愛而忽訓勸, 是猶不耘苗而望禾熟. 寧有是理? 向見汝於兒子, 愛愈於嚴, 故及之.”

33) 신용호, 강현규공저, 1997, p.60.

나는 것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연령에 이르러서도 冠禮를 올리지 않았거나 字를 지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이전까지는 冠禮를 통해 字를 지어주지 않았다는 선행연구<sup>34)</sup>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2. 字의 創作 過程

「曲禮」에 “남자는 20살이 되면 冠禮를 행하고 字를 부른다. 註에 冠禮를 행하고 字를 부르는 것은 그 이름을 공경해서이다”. 또 “여자는 혼인을 정했으면 笄禮를 하고 字를 부른다. 註에 역시 성인의 도리이니 字를 부른다.”고 했고 疏에 “冠은 성인의 복장이니 소년에서 成人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이름을 공경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字를 지어주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sup>35)</sup>고 한 것을 보면 字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공경하기 위해서 지어 부르는 것이므로 그 이름의 뜻을 근간으로 하여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현들이 字를 지을 때 경향을 보면 이름과 글자는 다르나 의미는 동일하게 짓기도 하고 이름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쓰기도 하였으며 이름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를 字로 부연 확충하기도 하였다. 이름의 뜻이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에는 字로 그 결함을 보완하기도 하고 선현의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字까지도 선현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기도 하였다. 이름과 字를 經書 속의 좌우명이 될 만한 동일 구에서 따다가 짓기도 하였다.

『淵鑑類函』에는 “字는 이름에 의거하여 짓는 것이니 이름은 字의 本이고 字는 이름의 末이다”<sup>36)</sup>라고 하였다. 字를 짓는 데는 “남자와 여자는 장유의 차례를 달리 하므로, 남자와 여자는 각각 첫째와 둘째로 부르는 것은 서로 간섭하고 뒤섞여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sup>37)</sup>라고 한 것과 같이

34) 이은영, 2006, p.85.

35) 『禮記』, 「曲禮 上」, “男子二十, 冠而字. 註. 冠而字之, 敬其名也. 女子許嫁, 笄而字. 註, 亦成人之道也, 故字之. 疏, 冠成人之服也, 自成童, 至於成人矣, 其可不敬其名乎. 於是, 從而字之, 亦宜也.”

36) 『淵鑑類函』, 262, 「人部」, “字依乎名, 名字之本, 字名之末也.”, 이은영, 2006, P.86, 재인용.

출생 서열을 밝히는 경우가 있어서 남녀별로 伯仲叔季의 次를 따랐고, 字를 짓는 데는 각 姓氏마다 독특하게 쓰는 行列을 나타내는 글자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字를 알 수 있고 字를 들으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孔子의 아들 鯉는 字가 伯魚였다.

신용호·강현규(1997)는 8가지 作字 傾向을 밝히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동훈(同訓)은 이름과 같은 의미 즉 同意의 글자로 字를 짓는 것이니 이름과 字가 글자는 다른 것이되 뜻은 같게 짓는 것이다. ②동자(同字)는 이름에 쓰인 글자를 字에 그대로 쓰는 경우이며 ③지실(指實)은 이름에 쓰인 글자가 지닌 의미의 實相을 지적하여 밝히고 확인하여 지을 수 있는 글자로 지은 字이다. ④대문(對文)은 이름으로 쓰인 글자의 의미와 상대가 되는 의미를 지니도록 字를 짓는 것을 말하며 이름의 뜻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편재성과 미완성을 字로 보완하여 종합성과 완결성을 띠도록 한 경우이다. ⑤사제(思齊)는 존경하는 인물과 같게 되기를 생각한다는 뜻으로 존경하여 본받고자 하는 인물과 이름과 字를 같게 짓는 것이며 ⑥연류(連類)는 옛 경서나 문장 속의 한 구에 쓰인 글자를 따서 이름과 字를 지은 것을 말하며 ⑦변물(辨物)은 이름과 같은 류에 속하는 사물의 이름으로 字를 짓는 것을 말한다. ⑧지산(識產)은 출생한 지명을 넣어서 이름과 字를 짓는 것이다.<sup>38)</sup>(번호는 필자가 붙임)

이름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지은 字와는 달리 허물없이 부를 수 있고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지어 쓸 수 있었던 雅號나 堂號가 있고 사후에 생시의 행적을 참작하여 국가에서 死者에게 내려주는 칭호인 諡號가 있다. 字는 도덕적 규범이나 미래를 향한 개인의 가치 규범이 담겨 있는 반면 號는 자신이 생활하고 있거나 인연이 있는 처소로 정하거나 현재의 자신의 처지, 자신이 목표로 삼아 도달한 경지 또는 지향하고

37) 『禮記』「曲禮 上」, “男女異長. 註各爲伯仲, 示不相干雜之義也.”

38) 신용호, 강현규공저, 1997, pp.38-56.

자하는 목표와 의지를 담아 지었다. 諡號는 왕을 비롯하여 국가에 큰 공을 세운 高官이나 儒賢에게 국왕이 사후에 붙여준 칭호로서 사후에는 생시에 불리어지던 이름을 諱하게 되는 까닭에 諡號를 지어 이름 대신에 불렀다. 중국의 예를 보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존중하여 私諡를 지어 부르기도 했다. 號는 한사람이 여러 개를 사용한 반면 字는 평생 동안 1개이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에만 2개인 경우가 있다. 秋史 金正喜(1786-1856)의 호는 90개에서 500개로 알려져 있다.

퇴계는 다시 복직되매 翌年(46세)봄에 飄然히 관을 버리고 熙熙한 樂園에 돌아왔다. 퇴계는 이에 兎溪東菴에 養眞庵을 築하고 더욱 독서 구도에 뜻을 굳게 하였으니 ‘퇴계’는 즉 이 ‘토계’를 개칭하여 취한 호이었다. ... 앞서 풍기군수의 직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퇴계는 居를 다시 퇴계서안에卜하여 새로이 한루암을 構하고 越10년 庚申(60세)冬에는 또 도산 남에 서당을 지은 후 이에 의거하여 陶叟 혹은 退陶라 別號하였다.<sup>39)</sup>

이 글을 통해 李滉(1501-1570)의 號는 거처에 따라 退溪, 陶翁, 退陶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淸涼山人이라는 號도 있었다. 諡號는 文純공이었고 初名은 瑞鴻, 初字는 季浩였으며 이후에 다시 字를 景浩로 지었다. 滉은 깊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더 나아가 景(크다)浩(크다, 넓다, 성대하다)로 字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李滉의 후손이면서 근세 인물 중 響山 李晚燾 (1842-1910)는 이황의 13세손이며 한말 資憲大夫 同副承旨를 지낸 학자이다. 이만도는 1910년 8월 일제에 의하여 한국이 병탄되자 유서를 지어 告訣한 뒤 단식 24일 만에 순국하였다. 그의 字는 觀必이고 아우인 柳川 李晚燿(1845-1921)는 한말 通訓大夫 弘文館校理로서 파리장서의거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인데 그의 字는 順則이다. 두 형제의 항렬은 晩이므로 이만도는 ‘燾(비추다, 가리다)’의 뜻과 동일한 ‘觀必(반드시 사리를 분별하여 깊이 통찰하다)’로 지었고 이만규는 ‘燿(불꽃)’의 의미를 확장하여 周易 繫辭 上에 “聖人則之”를 따라 ‘順則(본

39) 李丙燾, 『斗溪雜筆』, 一潮閣, pp.260-261. 신용호, 강헌규, 1997, P.140. 재인용

보기를 삼아 따르다)하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만도의 아들인 李中業(起巖 1863-1921)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 ‘中’은 향렬이고 小學題辭에 “德崇業廣 乃復其初”의 뜻을 따라 ‘業(일)’을 더 확장하여 廣初(본성을 회복하여 넓히다)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字는 이름에서 향렬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 글자의 뜻과 동일하거나, 같은 글자, 또는 그 뜻을 확장시키거나 상대자에서 가져오고 나머지를 글자는 ‘父, 甫, 夫, 彦, 子, 卿’등과 같은 美稱을 더한다든지 ‘之, 而, 哉, 以’등과 같은 虛辭, ‘爾, 汝’등과 같은 指稱을 부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글자 모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향렬자를 포함하여 이름의 뜻을 해석하여 字를 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를 나타내는 글자를 이름에 붙이는 ‘父, 甫, 夫’는 뒤에 붙고 ‘彦, 子, 卿’은 앞에 붙는다. 형제의 유대감과 서열을 나타내는 ‘伯, 仲, 叔, 季’는 앞에 붙기도 하고 뒤에 붙기도 하는데 형제가 3명인 경우 차례로 ‘伯, 仲, 季’를 붙이고 4명인 경우는 ‘伯, 仲, 叔, 季’를 붙인다. 4명 이상인 경우에는 ‘伯, 仲, 叔, 叔, 季’를 붙였다.

### 3. 字 創作의 實際와 그 傾向

字 창작의 실제와 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嶠南科榜錄』권2(인조1603-영조1775)의 과거 문과합격자<sup>40)</sup> 484명 가운데 字가 기록되어 있는 합격자 271명의 字를 作字傾向에 따라 분류하였다. 271명의 명단은 <부록1>에 실었다. <표1>은 『嶠南科榜錄』권2의 문과 합격자 명단의 일부이다.

40) 과거합격자 가운데 字가 있는 사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명단은 부록으로 만들었다. 字가 없는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1> 『嶠南科榜錄』 권2 문과 합격자 명단

번호	이름	字	번호	이름	字
1	金應祖	孝徵	243	韓永徽	
2	申達道	亨甫	244	權斗紀	叔章
3	全致信	景實	245	孫景錫	仲伯
4	郭 崦	子立	246	丁維愼	
5	洪 霽	伯升	247	崔慶是	善餘
6	金克恒	德吉	248	尹佑甲	任卿
7	金知復		249	安后靜	君敬
8	申悅道		250	任華世	
9	金 輅		251	尹東盧	
10	呂悼	晦仲	252	金重兼	粹彦
11	鄭 杻	文中	253	朴希顔	景愚
12	朴敦復	無悔	254	李基命	定叔
13	琴忠達		255	朴泰斗	景瞻
236	黃壽嶷		478	南基萬	伯溫
237	金慶賚		479	李敬彬	
238	金泰重	士守	480	金若鍛	幼成
239	申益慶		481	李 垸	治道
240	孫萬重		482	金宗敬	直甫
241	金夏欽		483	姜棖	
242	柳敬時	欽若	484	朴忠煥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작자 경향의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意同은 字를 이름과 같은 의미로 지어 뜻이 동일하거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경우이다.



둘째, 同字는 이름에 쓰인 항렬이 아닌 한 글자를 字에도 그대로 쓰는 경우이다.

셋째, 進就는 이름의 뜻을 더 확장하여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넷째, 謙虛는 字의 뜻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결함을 보완하거나 덜어내고 비워두어 보완하여 채워가라는 의미로 지은 경우이다.

다섯째, 遵賢은 선현과 이름이 같은 경우 字도 그의 字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를 포함하여 선현을 따른다는 의미로 지은 경우이다.

여섯째, 經在는 이름이 경전에 실려 있고 같은 經文에서 字를 취해오는 경우이거나 이름이나 字만 경문에서 취하는 경우이다.

일곱째, 그 외의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2>는 권2에 기록된 字를 본 논문에서 定義한 作字 경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字를 기록한 사람은 271명이었으나 인쇄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7명을 제외하고 264명을 분류하였다.

<표2> 作字 傾向 分析

분류	인원(264명)	비율(100%)
意同	115	43.6
同字	10	3.8
進就	75	28.4
謙虛	35	13.3
經在	25	9.5
遵賢	3	1.1
其他	1	0.3

<표2>에 의하면 意同은 전체 조사자 264명 가운데 115명으로 43.6%를 차지하였다. 이름이 達道인 경우, 통달하다는 ‘達’과 같은 의미의 글자인 형

통하다는 ‘亨’과 남자의 字에 부치는 미칭인 ‘甫’를 써서 字를 ‘亨甫’라 하였다. 이름이 ‘頊’인 경우, 삼가할 ‘頊’과 같은 의미의 글자인 삼가할 ‘愼’과 만이를 나타내는 ‘伯’을 써서 ‘愼伯’으로 짓는 것이다. 意同으로 字를 짓는 방법은 ‘뜻’이 완전히 똑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서로 상통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음은 다르지만 서로 뜻이 통하는 글자의 字를 호칭함으로써 그 ‘字’의 당사자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결국 이름에 쓰인 글자를 피하고 뜻이 통하는 글자의 ‘字’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敬名’의 뜻이 드러난 것이다. 『嶠南科榜錄』에서 意同의 예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 意同의 實例

	이름	作字에 사용된 이름	字	의미
1	金應祖	祖	孝徵	조상에 효도하다
2	金天濯	天	大源	하늘처럼 넓고 큰 뜻을 이루다
3	金致信	信	景實	알차게 내실을 가지다
4	郭崦	崦	子立	산처럼 우뚝 서다
5	呂悼	悼	晦仲	완성되도록 하라

同字는 조사자 가운데 10명으로 3.8%에 불과했다. 이름이 柱一인 경우, 하나 ‘一’과 허사인 ‘之’을 字에 그대로 사용하여 一之라고 짓는 것이다. 洪望은 ‘望’字를 그대로 사용하여 望久, 光國은 ‘國’字를 그대로 사용하여 國耳로 字를 쓰는 것이다. 作字 방법이 同字이므로 같은 글자를 택해서 字를 쓰되 나머지 한 글자는 다른 글자가 되어 字를 부르게 되면 이름과는 한 글자만 같은 또 다른 명칭이 된다. 따라서 이름과 중복되지 않는 효과가 있으므로 한 글자로 ‘같은 사람’임을 드러내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嶠南科榜錄』에서 同字의 예를 보면 <표4>와 같다.

<표4> 同字의 實例

	이름	作字에 사용된 이름	字	의미
1	鄭東潤	潤	潤卿	인격이 윤택하다
2	權尙龍	龍	龍如	용과 같이 신비스럽다
3	孫萬雄	萬	敵萬	대담하고 굳건하라
4	李重培	重	華重	더욱 복돋우면 결과가 화려하게 된다
5	金正龜	正	正則	바르고 본보기가 되게 하라

進就는 75명으로 28.4%를 차지하였다. 진취의 예를 들면 金益禧는 복을 더하여 편안함을 누리라는 의미에서 字를 子綏로 하였으며 李暢은 백이 숙제가 수양산에서 절개를 지켜 후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彦瞻이라 하였다. 진취는 이름에 쓰인 글자의 뜻을 字에 확장하고 나아가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라는 염원을 字에 실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嶠南科榜錄』에서 진취의 예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5> 進就의 實例

	이름	作字에 사용된 이름	字	의미
1	鄭弘緒	弘	克承	자기를 이겨라
2	韓克述	述	光甫	의지를 밝혀라
3	金鳴遠	遠	道以	법도에 맞으면 멀리 퍼진다
4	孫處愼	愼	思叔	깊이 생각하라
5	羅以俊	俊	宅于	집안에서 다져가라

謙虛는 조사자의 13.3%인 35명이 해당되었다. 金克恒은 이름에 능하다(克)는 뜻이 있으므로 덕을 보완하여야 길하다는 의미에서 德吉로 字를 지

어 능력이 있음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부족한 덕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柳挺輝는 이름에 빼어나고 빛나다(輝)의 의미를 보완하기 위하여 ‘仲謙’이라 하였다. ‘仲謙’은 형제의 서열 중 둘째를 나타내는 ‘仲’과 겸손을 나타내는 ‘謙’을 써서 지은 것이다. 『嶠南科榜錄』에서 謙虛의 예를 보면 <표6>과 같다.

<표6> 謙虛의 實例

	이름	作字에 사용된 이름	字	의미
1	金是樞	樞	子中	중용을 취하라
2	李崇彦	彦	容伯	넓게 받아들이라
3	曹挺融	融	維瞻	세상살이를 살피라
4	李廷機	機	子愼	기회를 신중히 살피라
5	柳挺輝	輝	仲謙	겸손하라

遵賢은 조사자 271명 중 3명으로 羅學川은 중국 송나라 陳師道の 학문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字를 師道로, 成起寅은 일찍 학문이 일어나 중국 남송이 멸망한 후 회복에 노력한 만고충신 文天祥의 절조를 따르라는 의미로 字를 天祥으로, 李命夔는 書經 舜典에 “命夔曰命汝典樂(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를 명하여 음악을 맡게 하노라)”를 따라 夔가 聖人인 舜임금을 도와 樂典을 만든 것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의미로 字를 聖弼로 하였다.

經在는 조사자의 9.5%인 25명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作名 方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作字의 원칙에 준해서 ‘經在’를 ‘이름’과 ‘字’에 적용한 경우와 ‘字’에만 적용시킨 것 모두를 포함시켰다.

삼은 노둔하고 노는 둔함이라. 정자가 말씀하기를 삼(증자)은 마침내 노둔함으로써 얻었느니라. 또 말씀하기를 증자의 학문은 성실하고 독실함뿐이다. 성인의 문하에서 배우는 자가 총명하고 재주 있고 말 잘함이 많지 않음이 아니로되 마침내 그 도를 전한 것은 바탕이 노둔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학문은 성실함으로써 귀히 여기는 것이다. 윤씨(尹焯)는 이렇게 말하였다. 증자의 재주가 노둔한 까닭으로 그 학문이 확실해졌으니, 이것이 능히 깊이 도에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이다.<sup>41)</sup>

이는 金宅魯가 논어 선진 17장에 있는 ‘魯는 鈍也라’의 魯로 명을 지었으므로 同句에 있는 ‘得’을 가져오고 허사인 ‘而’를 사용하여 ‘得而’로 字를 지었다고 볼 수 있다.

張應一의 字는 經叔인데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림에 아홉 가지 상도가 있으니 행하는 길은 하나이다.”<sup>42)</sup>에서 이름의 ‘一’과 字의 ‘經’을 가져오고 형제의 서열을 나타내는 ‘叔’을 사용하여 ‘經叔’으로 지었다.

呂孝會의 이름은 “증자와 같은 이는 뜻을 봉양한다고 하는 것이다. 아버이 섬기기를 증자같이 해야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효도를 하니 동양 제일의 효자이다.”<sup>43)</sup>에서 따온 것이다. 字는 魯而인데 “曾參은 노둔하다는 주에 윤씨가 말하기를 ‘증자의 재질이 노둔한 고로 그 배움이 확실하여 능히 깊이 도에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다.”<sup>44)</sup>는 문장에서 ‘魯’를 가져오고 허사인 ‘而’를 사용하여 ‘魯而’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朴安復의 이름은 “상전에 말하기를 ‘우레가 땅 가운데 있음에 복이다.’<sup>45)</sup>에서 ‘復’을 가져 온 것이고 字는 “우레가 땅 가운데 있음은 양이 처음 회복하는 때이다. 양이 처음 아래에서 생겨 심히 미미하니, 안정한 뒤에 자랄 수 있는 것이다.”<sup>46)</sup>에서 ‘雷’와 형제 중 두 번째 서열을 나타내는 ‘仲’을 써서 ‘仲雷’라 지은 것이다.

張俊南의 이름은 “많은 신하들이 착한 마음을 넓히어 용감하게 정벌에 나서서 동남쪽 오랑캐를 다스린다.”<sup>47)</sup>에서 ‘南’을 가져 왔으며 字도 같은 經文에서 ‘濟’를 가져오고 字에 붙이는 美稱인 ‘卿’을 써서 ‘濟卿’으로 지은 것

41) 『論語』, 「先進」17章, “參也魯, 魯鈍也.. 程子曰 參也. 竟以魯得之. 又曰曾子之學, 誠篤而已. 聖門學者 聰明才辨, 不爲不多 而卒傳其道, 乃質魯之人爾. 故學以誠實爲貴也. 尹氏曰 曾子之才 魯故其學也, 確所以能深造乎道也.”

42) 『中庸』, 「章句」二十, “凡爲天下國家有九經, 所以行之者一也.”

43) 『孟子』, 「離婁章句 下」, 十九, “若曾子, 則可謂養志也. 事親若曾子者, 可也.”

44) 『論語』, 「先進篇」十七, “參也魯. 尹氏曰 曾子之才魯, 故其學也確, 所以能深造乎道也.”

45) 『周易』, 「復卦 象」, “曰雷在地中, 復.”

46) 『周易』, 「復卦 傳」, “雷在地中, 陽始復之時也. 陽始生於下而甚微, 安靜而後能長.”

47) 『詩經』, 「頌 魯頌·泮水」, “濟濟多士 克廣德心, 桓桓于征, 狄彼東南.”

이다.

金堯欽의 이름은 “능히 기르고 능히 등용하는 것은 어진 이를 기쁘게 함이 지극한 것이다. 오직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할 수 있었으니 후세에 마땅히 본받을 만하다.”<sup>48)</sup>에서 가져오고 字도 동일한 經文에서 ‘順’을 가져와 허사인 ‘之’를 부쳐 ‘順之’로 한 것이다.

이외에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변물(辨物)이나 지산(識産)에 해당하는 예는 조사하지 못했다. 『嶠南科榜錄』에서 經在의 예를 보면 <표7>과 같다.

<표7> 經在의 實例

	이름	經文에서 가져온 글자	字	經文에서 가져온 글자
1	張應一	一	經叔	經
2	呂孝會	孝	魯而	魯
3	朴安復	復	仲雷	雷
4	張俊南	南	濟卿	濟
5	金堯欽	堯	順之	順

신용호 등은 ‘伯, 仲, 叔, 季’ 등과 같이 형제 등 序列을 정하고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作字 방법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作字’의 원칙이 이 뿐만 아니라 ‘父, 甫, 夫, 彦, 子, 卿’ 등과 같은 美稱을 더한다든지 ‘之, 而, 哉, 以’ 등과 같은 虛辭, ‘爾, 汝’ 등과 같은 指稱의 원칙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수용하지 못했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作字 원칙에 序列, 美稱, 虛辭, 指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8>과 같다.

48) 『孟子』, 「萬章章句 下」 六, “註能養能舉, 悅賢之至也. 惟堯舜爲能盡之, 而後世之所當法也. 故順之.”

<표8> 序列, 美稱, 虛辭, 指稱 사용 경향

분류	사용빈도(146명/264명)	비율(55.3%)
美稱	65	24.6
序列	48	18.2
虛辭	18	6.8
指稱	15	5.7
계	146명	55.3%

<표8>을 보면 作者 傾向을 분석한 264명 중 118명(44.7%)은 두 글자 모두 뜻을 취하였으며 나머지 146명(55.3%)이 한 글자만 뜻을 취하고 나머지 한 글자는 美稱, 序列, 虛辭, 指稱을 사용하여 字를 지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美稱이었고 그 다음이 형제의 서열을 나타내는 글자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達道’의 경우 ‘達’은 意同의 ‘亨’을 취하고 한 글자는 미칭인 ‘甫’를 써서 ‘亨甫’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意同’과 ‘美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嶠南科榜錄』에서 드러난 ‘作字’의 경향을 보면 이름과 뜻이 동일한 字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름의 뜻을 더 확장시켜 字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었다. 그 다음으로 이름의 뜻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겸허의 의미로 字를 지었다. 또한 경전 속에 있는 글자를 이름이나 字로 사용하여 짓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서를 본보기로 삶의 목표로 삼고 지향할 가치관이나 덕목이 포함되도록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이름과 字는 훌륭한 뜻이 함유되어 있고 이름과 字가 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지었다.

字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嶠南科榜錄』 2권과 3권에 字가 수록된 문과 합격자 583명의 字를 분석하였다. 字는 모두 2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글자는 형제순서를 나타내거나 남자에게 쓰이는 미칭, 지칭, 그리고 뜻이 없는 허사를 넣어 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글자만 분석하였으며 모두 768자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자를 빈도순으로 20위까지만 정리한 것은 <표9>와 같고 20위 이후는 부록에 정리하였다.

<표9> 字에 사용하는 글자 빈도

순위	글자	의미	빈도	순위	글자	의미	빈도
1	聖	성인	28	11	叟	늙은이	10
2	景	크다	22	12	可	옳다	10
3	德	크다, 덕	19	13	敬	공경하다	9
4	士	선비	18	14	源	근원	9
5	文	글	17	15	大	크다	9
6	瑞	경사롭다	13	16	明	밝다	9
7	成	이루다	13	17	遠	멀다	9
8	善	착하다	12	18	玉	옥	8
9	應	응하다	11	19	公	공적	8
10	天	하늘	10	20	道	도리	8

위의 표를 보면 조선중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영남지방 문과 합격자 가운데 字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聖이고 그 다음이 景, 德, 士, 文의 순서이다. 聖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상형인 孔子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 聖인이 될 수는 없지만 聖인의 행실을 배워 실현하려는 것이 또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삶의 목표였고, 학문을 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중국의 聖人은 堯·舜과 禹·湯, 周文王을 말하고 있고<sup>49)</sup>, 후대에 孔子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역사상에서 실질



적인 왕조가 형성되고 정치와 문물이 정립되는 시기가 주나라이며 그 바탕이 되는 사람이 周文王이다. 그러므로 聖人の 반열에서 문왕과 같은 인물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文’자를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景’은 字義가 햇빛[日光]이다. 또는 크다[大也]이다. 이것은 선비의 요건이 성현을 닮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명정대하고 光明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유가사상에서 제일 금기시 하는 것이 私이다. 私가 있는 한 克己復禮를 이룰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선비의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이 私가 배제되는 사회를 형성하는 데는 밝은 빛[日光]과 정정당당한 대도를 걷는 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올바른 도리이므로 ‘景’자를 선호하였던 것이다.

유학에서 대표적 이상형은 聖人이지만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인간상이므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이상형은 군자와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후세에 ‘선비정신’, ‘선비의 생활’ 등등에서 ‘선비’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완전한 인격자인 성인이나 덕을 갖춘 군자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을 뜻하고 그런 인간에 도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士’자를 많이 쓰고 있다.

인간은 성인을 바라볼 뿐이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군자가 될 수는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인 德에 대해 “군자는 먼저 德을 삼가고 德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게 되니 德은 근본이란 것이다.”<sup>50)</sup>고 한다. “무릇 사람의 성품은 누구나 그 德을 잘 닦아 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나 그 德을 잘 기르지 못하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이 그 德을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자는 利라는 말의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워한다.”<sup>51)</sup>고 하기 때문에 德자를 자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군자와 선비는 예로부터 유학의 학식[文]과 德을 갖춘 사람으로 바른 길을 찾아 義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字를 지을 때 文, 士, 德을 많이 사용하는

49) 『近思錄』, 卷之十四, 「觀聖賢類 凡二十六條」, “文王之德, 則似堯舜, 禹之德, 則似湯武, 要之皆是聖人也.”(文王의 덕은 堯舜과 같고 禹의 德은 湯과 武왕 같으니 요컨대 모두가 聖人이다.)

50) 『大學』, 「章句」, 十, “君子 先慎乎德, 有德 此有人, 德者 本也.”

51) 劉向, 『說苑』, 卷五, 「貴德」, “凡人之性, 莫不欲善其德, 然而不能爲善德者, 利敗之也. 故君子羞言利名.”

이유도 일생을 통해 군자와 선비를 이상형으로 하여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사롭다(瑞), 이루다(成), 착하다(善), 응하다(應), 하늘(天)과 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字를 지어주면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밝다(明), 크다(大), 근원(原), 도리(道), 노인(叟), 공적(公), 공경(敬), 옥(玉), 멀다(遠)등의 字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겸손과 도리, 밝고 귀함, 인간에 대한 공경으로 일생을 통해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 지도적인 지식층인 선비는 개인의 도덕적 인격을 확립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선비들의 도덕의식의 중심 주제는 의리이며 개인적 도덕의식의 근거를 확인하고 사회적 기반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격적 내면의 도덕성을 각성하는 敬과 義의 규범질서를 제기하고 있다.<sup>52)</sup>

이은영(2006)은 “字를 짓는 방식 가운데 일반적인 형태는 도덕적 규범이나 당위적 실천 명제를 삶속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특히 일상의 동작이나 태도와 관계있는 단어를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53)</sup>고 하였으나 영남지방 과거합격자의 字를 분석한 결과는 한 글자의 字를 통해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과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은 인조반정 이후 조정에는 “西人이 집권한 조정에 진출한 南人들은 처음부터 그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반정공신의 발호였다. 비록 영의정 자리는 남인에게 내 주었지만 그 이외의 요직은 모두 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金瑬는 반정직후 병조판서가 되어 병권을 쥐었고, 李貴는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가 6개월 만에 우찬성에 임명되었고, 長湍府使였던 李曙는 호조판서를 맡았다. 최명길은 7개월 만에 이조좌랑에서 參判까지 승진하였고 김류는 인조가 마음속으로 남인을 비호하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 당파에 지시하기를 ‘이조참판 이하는 쓰게 할 수 있지만 이조판서 이상 및 議政府에는 남인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남인들이 왕실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國婚을 남인에게 빼앗기지 말도록 당부하였

52) 금장태, 1995,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53) 이은영, 2006, p.86.

다”.<sup>54)</sup>

위 글로 미루어 그 당시 영남지방은 남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조정에 나아가 높은 관직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림에서 학문에 증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남지방 선비들의 이상형은 권력보다 도학군자로 정립하였기 때문에 字를 지을 때 <표 9>와 같은 경향을 가졌다고 본다.

---

54) 許捲洙, 1993, 『朝鮮後期 南人과 西人の 學問的 對立』, 법인문화사, p.23.

### Ⅲ. 字辭와 字說의 性格과 意味

字辭와 字說은 字를 지어주고 字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글이다.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성인이 되어 훌륭한 선비가 되고 선비가 되기 위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인생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字辭와 字說의 성격을 살펴보고 시대에 따른 字辭와 字說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字辭의 性格과 意味

辭는 전국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屈原이 詩歌의 전통을 계승하고 초나라의 民歌를 학습하며 그 속에서 예술적 자양분을 흡수한 위에 창조해 낸 새로운 詩 형식이다. 처음에는 詩 형식이었으나 후대에는 산문화된 장르이다. ‘字辭’는 字의 의미를 辭의 형식으로 지은 것이다. 『문체명변』에는 “남자가 冠을 쓸 때 三加를 하고 세 번 醮를 하며 字辭로 申飭한다. 후인들이 이로 인해 字說, 字序, 字解 등의 글을 짓게 되었다.”<sup>55)</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字辭는 冠禮를 할 때 빈으로 초청된 사람이 字를 지어주면서, 字를 짓는 의미와 字의 상세한 뜻을 전달할 목적으로 지었다. 후대에 오면 운문의 字詞보다는 산문의 ‘字說’이 위주가 되어 활용되었다.<sup>56)</sup>

吳草廬가 虞采와 虞集에게 字를 지어 주고 준 字辭는 다음과 같다.

해로는 저웅에다 곤돈인 해고  
달로는 육명이 되는 이날에  
우씨 집안 두 아들이 나이가 차서  
상투 틀어서 성인 되었다.  
이미 갓을 씌우고  
그 이름을 공경코자 字를 지었네.

55) 이은영, 2006, 『문체명변』, 『산문편, 字說條』, “士冠三加三醮, 而申之字辭. 後人人之, 遂有字說 字序字解等作.” p84, 재인용.

56) 이은영, 2006, “然近世多尙字說, 古今以說爲主.” p84, 재인용.

采에게는 受자 써서 字를 지었고  
 集에게는 生자 써서 字를 명했네.  
 너희 형제 가운데에  
 采는 맹이고 集은 백이라.  
 이에 맹과 백 자를 앞에 붙였으니  
 너희들의 덕 이루길 더욱 힘써라.  
 어떻게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예에서 충성과 믿음이 되고  
 어떤 곳이 모이고 어떤 것이 생기느냐에 따라  
 마음의 기개가 이루어진다.  
 예라는 것은 대체로 다듬는 것이니  
 그 근본을 받아서  
 마치 처음 그림과 같이  
 바탕이 소박하고 치장한 것 같다.  
 의리가 쌓이게 되면  
 그 효과가 생겨지는 것 같이  
 마치 곡식을 기를 적에 열매익음이  
 싹이 무성히 자라야 하는 것과 같다.  
 내 이제 너 采에게 말하노니  
 성실함으로써 명석하고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거들랑  
 거칠고 정밀함을 하나로 꿰뚫어라.  
 내 이제 너 集에게 말하노니  
 밝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도록 하라.  
 그 공을 다 이루어 온 몸에 가득하여  
 생각마다 한결같이 진실되어서  
 안과 밖 둘 다 거짓이 없게 하여라.  
 말하고 행동함에 위의를 있게 하여  
 차츰차츰 완전해지고  
 일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하면  
 천지간에 부끄럽지 아니할 거며  
 성대하게 여기저기 두루 흘러서 나아가고  
 물러섬을 잊을 것이다.  
 색칠함은 겉모습을 꾸밈이 아니고

덕이 쌓임은 말이 많음도 아니니  
 현인 되고 성인되길 희망한다면  
 너희들의 집안 가학 있게 될 것이고  
 정승 집에 뒤를 잇는 후사 있어서  
 예의 범도 전함이 있게 될 것이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를 계획하여  
 그대들의 선조들을 욕되게 말라.<sup>57)</sup>

위의 字辭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씨 집안의 두 아들이 冠禮를 하고 그 이름을 공경하기 위하여 虞采에게는 孟受, 虞集에게는 伯生이라는 字를 지어 주었다. 虞采와 虞集에게 만이를 나타내는 ‘孟’과 ‘伯’을 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종형제간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양자로 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冠禮를 하고 字를 지어주는 이유를 밝히면서 冠禮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예를 배우고 道와 義를 쌓아 호연지기를 기를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성실함과 정밀함,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도덕적 자질을 갖춘 유교적 이상형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字를 주면서 字를 짓는 의미와 그 字의 상세한 뜻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형제들의 字를 함께 짓거나 字辭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고 가족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밝혀주고 있다.

## 2. 字說의 性格과 意味

‘說’은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변별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서 일정한 문학적성을 지닌 논변체 산문에 속한다. 『문체명변』 「序說」에 “說은 解이다. 術

57) 吳草廬(1249-1333) 남송의 학자, 원나라 유학자

著雍困敦 相月六莫 虞氏二子 夔突而成 既加元服 乃敬其名 字采曰受 字集曰生  
 采也維孟 集也維伯 爰加爾字 用勗爾德 孰采孰受 忠信於禮 孰集孰生 道義於氣  
 禮喻夫采 受者其本 如繪之初 質以素粉 義在夫集 生者其效 如耘之熟 苗以長茂  
 予告汝采 自誠而明 行有餘力 一貫粗精 予告汝集 自明而誠 及其成功 四體充盈  
 念念一貫 表裏無僞 言動威儀 浸浸可備 事事一是 俯仰無忤 盛大周流 進進罔覺  
 采匪辭華 集匪辯博 希賢希聖 爾有家學 相門有嗣 禮儀有傳 是究是圖 毋忝爾先

이다. 의리를 해석하여 자기의 뜻을 서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說’은 한유가 「師說」과 「雜說」을 짓고 유종원이 「捕蛇者說」을 지었고 뒷사람들이 ‘名說’ ‘字說’을 지었다.<sup>58)</sup> 字說은 특별히 주고 싶은 교훈 등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문맥으로 구성하고 있다. 字說은 字辭와 마찬가지로 冠禮에 賓으로 초청되어 冠禮를 올리면서 字와 함께 지어서 주기도 하고 冠禮를 올릴 때는 字만 지어주고 후에 字說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문집에 남아 있는 字說의 내용을 보면 冠禮를 올리지 않고 字를 짓고 이에 대한 字說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茂珍 金氏 세 아들의 名字에 대한 설

通憲大夫 金景先이 아들 세 명의 이름과 字에 대한 뜻을 글로 지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였는데, 내가 병 때문에 오래도록 지어 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長子인 成均學官이 또 찾아와서 말하기를, “부친의 명이니, 선생께서 부디 가르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하였다.<sup>59)</sup>

위의 글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에게 통헌대부 김경선이 세 아들의 이름과 字에 대한 뜻을 글로 지어달라는 부탁하는 글이다. 처음 김경선이 이색에게 세 아들의 字說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색이 병으로 인하여 지어주지 못하고 있다가 김경선의 맏아들이 찾아와 다시 청한 이후에 지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名字說의 첫 머리 부분인데 字說을 쓰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울곡선생의 대를 이을 손자 이종문 교리가 신축 3월 상순에 그 아들 학희에게 관을 씌워 字를 몽령이라 하였다. 외람되이 나로 하여금 그 예를 돕게 하였는데, 예가 마쳐지고 나서 나에게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은 우리 선인께서 하사하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꿈에 학이 나타나는 기이함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이름하고 우리 선친이 가까이 지낸 한 경

58) 陳必祥著 沈慶昊 譯, 1995, 『한문문체론』, p181.

59) 『牧隱文藁』, 卷之十, 「茂珍金氏三子名字說」, “通憲金景先請予名其三子, 予以病未果久久矣. 長子成均學官又來曰, 父命也. 願先生有以教焉.”

재계서 그것을 듣고 옛날 장구령이 태어날 때에도 또한 꿈에 학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그 글자를 합쳐서 몽령이라 한 것이니 그대가 설을 지어 주시오.<sup>60)</sup>

위의 字說은 한말 위정척사론자이며 의병장을 지낸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이 지은 것이다. 이 字說을 살펴보면 유인석이 율곡의 후손인 이학희의 冠禮에 빈으로 초대되어 冠禮를 올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종문이 유인석에게 이학희가 태어날 때 학을 본 것으로 ‘學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옛날에 장구령이 태어날 때 꿈에서 학이 나타났다는 기이함으로 ‘夢’과 장구령의 ‘齡’자를 따서 ‘夢齡’이라고 字를 지었다는 作字 과정을 알려주면서 字說을 부탁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위의 2편의 字說을 통하여 賓으로 冠禮를 주관하러 가서 字와 字說을 주기도 하고 字만 지어주고 이후에 字說을 써 주거나 冠禮를 할 때 賓이 字를 지어주고 字說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字辭와 字說의 演變

조선시대 남아들의 理想像은 선비라 할 수 있으며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冠禮를 하고 冠者에게 지어주는 字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字辭와 字說이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선비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한 仁과 맹자가 말한 義의 정신이 字辭나 字說의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또한 仁을 바탕으로 한 德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字辭와 字說을 통하여 인생의 지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字辭와 字說의 내용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려 말부터 조선후기까지

60) 『毅菴先生文集』, 卷之四十, 「李學燴字說」, “栗谷先生嗣孫李種文校理, 以辛丑之三月上旬, 冠其子鶴燴, 而字曰夢齡. 猥令麟錫相其禮. 禮畢謂麟錫曰, 兒名吾先人錫也. 兒生有夢鶴之異, 故名以之. 而吾先人所親一卿宰, 聞之以爲, 昔張九齡之生. 亦夢鶴, 合字以夢齡也. 子其說之.”



의 字辭와 字說 가운데 3편을 뽑아 분석하였다.

‘지금 이군이 集으로 이름을 하고 浩然으로 字를 하였는데, 이것은 孟子의 말에 근본 한 것이다. 요사이 星山李氏 李崇仁이 이군의 名字序를 지었는데 심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였으니 어찌 쓸데없는 것을 덧붙일 것인가?’ 그러나 물은 성의를 저버릴 수 없어 억지로 한 마디 하기를, ‘무릇 이른바 浩然이라는 것은 곧 천지의 正氣이다. 천지 사이에 가득찬 모든 사물들은 모두가 이 기운을 얻어 本體를 삼기 때문에, 鬼神에 있어서는 幽와 顯이 되고, 日月星辰에 있어서는 위에서 내리비치는 것이 되며, 부딪치면 뇌성벽력이 되고, 濕氣는 비와 이슬이 되고, 산악과 河海가 흐르고 솟아올라, 鳥獸와 초목이 蕃盛하게 된다.

그 體가 된 것이 지극히 크고 강하여 宇宙를 안아서 벗어남도 없고, 털끝 [毫芒]만큼 들어 갈 내부도 없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이 쉽이 없고 그 쓰임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은 그 가장 정미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귀와 눈에서 총명과 입과 코로서 호흡과, 손으로 잡고 발로 움직이는 것이 모두가 이 기운이 하는 바이다. 이는 본디 浩然에서 부터 한 것이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천지와 더불어 서로 유통한다. 이것이 바로 이군이 기른 바이며, 그 기름에 있어서도 또 私意로 구차히 되는 것이 아니다. 버려두어도 안 되고 도와도 안 되니, 반드시 일삼아서 義를 모을 뿐이다.

아! 이 기운의 유행하는 것이 성하여서 쇠와 돌이라도 막지 못하며, 물에 들어가도 물에 적셔지지 않으며, 불에 들어가도 불에 달궈지지 않으며, 부딪치는 자는 부서지고, 가로막는 자는 흔들려 찢어져서 능히 당하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는 이미 가장 정미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 가장 정미한 것을 내 몸 가운데에 길러서 主를 삼았으니, 앞에서 말한 사람이 괴로워한다는 것은 모두 본성 외의 사물로 이 기운의 나머지에서 생긴 것들이니, 어찌 능히 나의 가장 정미한 것을 도리어 해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단연 이군이 마음에 기른 바가 있어서 우환으로 평소의 지닌 것을 고치지 않으리라고 믿어 마지않는 바이다.’고 했다.<sup>61)</sup>

61) 『三峯集』, 卷之四, 「李浩然名字後說」, “今李君集其名, 字浩然, 是本於孟子之言也. 近星山李氏, 爲李君名字序, 甚詳且明, 奚容贅焉. 然不可孤同意, 強一言之, 夫所謂浩然

위 글은 정도전(三峰 鄭道傳 1342-1398)이 쓴 李浩然의 名字後說의 일부이다. 李原齡이 辛屯의 난리 때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영천에 은신하고 있다가 신돈이 제거된 후에 돌아와 그 이름과 字를 고치고 李崇仁이 名字說을 지었는데 정도전이 그 후설을 쓴 것이다.

『孟子』에 보면 浩然은 “성대하고 유행하는 모양이고, 氣는 이른바 몸에 충만한 것이니, 본래 호연으로부터 기름[養]을 잃어버리고 본성에 굶주리는 까닭에 오직 맹자는 이것을 잘 길러 선하게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맹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sup>62)</sup>

이렇게 본다면 유가의 본 목적은 主一無適하여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니, 호연은 자신의 본마음 속에 원래부터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浩然之氣를 길러서 外物에 물들지 않는다면 천지에 막히고 궁색할 이 유가 없다. 만약 한번 외물에 마음이 끌려서 밝은 본심이 가려지는 바가 된다면 이것은 스스로 외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가질 것이니, 호연을 기[氣]와 곧음[直], 마땅함[義], 올바른 길[道]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울 만큼 넓고 커서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선비의 당당한 기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벗인 韓景善이 늦게야 아들 하나를 두어 애지중지하였는데, 어릴 때 이름을 金이라 불렀고, 장성하여 冠禮를 하면서 나더러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달라고 청하기에 내가 致健이라고 지어 주었다. 冠禮를 행할 때가 되어 申

---

者, 乃天地之正氣也. 凡物之盈於兩間者, 皆得是氣以爲之體, 故, 在鬼神爲幽顯, 在日月星辰爲照臨, 軋之爲雷霆, 潤之爲雨露, 爲山岳河海之流峙, 爲鳥獸草木之所以蕃. 其爲體也 至大而至剛, 包宇宙而無外, 入毫芒而無內. 其行也無息, 其用也無所不周. 而人則又得最精者以生, 故其在人, 耳目之聰明, 口鼻之呼吸, 手之執足之奔, 皆是氣之所爲. 本自浩然, 無所欠缺, 與天地相流通. 此則李君之所養者, 而其養之也, 又非私意苟且而爲也. 舍之不可也. 助之不可也. 必有事焉, 集義而已矣. 噫, 是氣流行之盛, 雖金石不可遏, 入水而水不濡, 入火而火不熱, 觸之者碎, 當之者震裂而莫能禦. 況吾既得最精者以生, 而又養其最精者於吾身之中, 以爲之主, 則向所謂人所苦者, 皆外物之生於是氣之餘者, 又安能反害於吾之最精者哉? 此吾斷然以爲李君中有所養, 而無所改於憂患而無疑者也”

62) 『孟子』公孫丑 上 註 “浩然, 盛大流行之貌. 氣, 卽所謂體之充者. 本自浩然, 失養故餒, 惟孟子爲善養之, 以復其初也. 敢問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

文初에게 字를 청하니 신군이 可久라고 지어 주었다. 금은 그 강함을 취한 것이요, 健은 그 성격을 취한 것이요, 久는 그 쉬지 않음을 취한 것이다. 乾이 陽剛의 덕으로써 그 행함이 지극히 굳세어 四時에 행함에 온갖 일이 감화되어 이루어지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도 쉬지 않으니, 이것은 어찌 유구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冠禮를 행하고 字를 지어주는 것은 禮이거니와, 字를 지어줌에 그 뜻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신군은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잘 빌어주었다고 하겠다.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의 행함이 굳세니 군자가 이를 취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고 하였다. 군자란 덕을 이룬 사람을 이룬 것이다. 군자가 진실로 중일토록 부지런하고 저녁까지도 두려워하여 그 純剛한 덕을 보전하고 힘쓰기를 마지 아니하여 중단함이 없다면 지극히 굳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성덕의 군자가 되지 않겠는가.<sup>63)</sup>

위의 글은 안정복(順菴 安鼎福 1712-1791)이 친구인 韓景善의 아들 韓致健에게 써 준 字辭의 일부분이다.

『論語』註에 “천지조화는 계속되어 한순간의 멈춤도 없으니, 곧 도를 닦는 사람의 몸의 근본이 그러하다. 그러나 가리킬 수 있고 보기 쉬운 것은 시내[川]의 흐름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 드러내어 사람에게 보이고, 배우는 자로 하여금 때때로 성찰하여 터럭만한 끊어지는 사이가 없게 하고자 함이다”<sup>64)</sup>고 했다. 그러므로 『千字文』에 실려 있는 ‘川流不息’의 釋義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시내[川]라고 하니 그 흐름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름은 군자가 힘쓰고 조심하여 쉬지 않음에 비유한 것이다.”<sup>65)</sup>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字辭를 통하여 “진실로 날로 부지런하고 그 純剛한 덕을 보전하고 힘

63) 『順菴先生文集』, 卷之十九, 「孫甥韓致健字辭」, “韓友景善晚有一子, 而愛之重之, 乳名曰金. 長而將冠, 請錫嘉名于余, 余曰致健. 及冠期而問字于申君文初, 申君曰可久. 金取其剛, 健取其性, 久取其不息. 乾以陽剛之德, 其行至健, 四時行, 萬化成焉, 歷萬古而不息, 則豈非久而然耶. 冠而字之禮也. 字之而得其義則善矣. 申君可謂得其義而爲善祝矣. 易曰,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君子成德之名. 君子誠能日乾夕惕, 保其純剛之德, 勉強不息而無所間斷, 則可謂至健而豈不爲成德之君子乎.”

64) 『論語』, 子罕篇, 註. “天地之化, 無一息之停, 乃道體之本然也. 然其可指而易見者, 莫如川流. 故於此發以示人, 欲學者時時省察, 而無毫髮之間斷也.”

65) 『千字文 釋義』其流, 日夜不息, 以喻君子, 乾惕不已也.

쓰기를 마지아니하여 중단함이 없다면 지극히 굳세다”의 의미에서 ‘可久’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군자는 자기 수양을 위하여 하루도 쉴 수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며 종일 조심하고 노력하며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이 字辭에서 강조한 것을 보면 군자가 될 것을 목표로 한 당부와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늘에는 밝은 명이 있어서 순수하여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성현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항상 그치지 않는다. 선비가 진실로 이를 이루려면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람과 하늘이 합일이 되면 이에 큰 복을 누리리라. 유씨 가문에 아들이 있으니 이름을 永善이라고 주어졌으니 禧卿이라. 字를 지어 이름을 공경하게 하니 평생토록 힘써 실천하라. 요순 임금처럼 효도하고, 공경하며 공자처럼 忠恕를 실천하면, 대로처럼 평탄할 것이고 항상 그침이 없이 실행될 것이다.<sup>66)</sup>

위 字辭는 전주(艮齋 田愚 1841-1922)가 柳永善에게 지어준 字辭이다. ‘永善’이라는 이름에서 ‘永’은 항렬이고 ‘善’을 베풀면 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에서 ‘禧’자를 사용하였고 미칭인 ‘卿’자를 사용하여 ‘禧卿’으로 字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의 제일 효자는 순임금이다. 간교한 계모와 못난 이복동생의 간악한 계교에도 무사히 빠져 나오면서 오직 원망을 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효도만 실행한 순 임금의 효성을 잃지 않음을 비유하여 지은 글이다. 간단한 문장으로서는 이름을 공경하라는 당부와 앞으로 자기 스스로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형식은 예서에 나오는 字辭의 기본 형식만을 취하여 간단한 내용을 첨가하여 別書로 만든 것이다.

사람은 행해야 할 道가 있으니 당연히 이를 공경히 받아들여야 하네.

66) 『艮齋先生文集後編續』, 卷之七, 「柳永善字辭」

天有明命, 純粹無雜, 聖有顧訓, 恒久不輟. 士苟能此, 天人合一. 人與天合, 爰介景福. 柳氏有子, 錫名永善, 欽以禧卿. 終身力踐, 堯舜孝弟, 仲尼忠恕, 坦如大路, 常行無愆.

義에 맞게 이를 이어받는 것이 천리에 순응하는 것이네.

이런 뜻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에 반드시 凝聚하리니

이 증조할아버지의 명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라

이에 字를 敬承이라 지어주노라<sup>67)</sup>

위의 글은 笄禮를 올리고 字를 지어주고 그에 따른 字辭를 써 준 드문 기록이다. 전우가 증손녀의 혼인을 앞두고 字를 敬承으로 지어주고, 사람이 행해야 할 도리로서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라는 당부의 뜻을 담아서 지어준 字辭이다.

이름이 貞順이니 ‘順’의 뜻을 따라서 ‘承’자를 썼다. 여자는 三從之道를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혼인을 하면 在家從父에서 從夫의 도를 실행해야 하니 공경스럽게 따름이 婦德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옛날은 혼인을 정하고 笄禮를 하는 것이 常禮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증조할아버지의 명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婚姻을 한 후 媿家생활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위와 같이 字辭와 字說의 내용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고려 말 李集의 字說을 보면 당시 사대부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안정복의 字辭는 당시의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것과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으며 개화기 한학자인 전우가 지은 字辭는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이 배어 있으나 관념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冠禮와 상관 없이 字辭와 字說을 지었던 조선 초기나 冠禮를 하면서 字辭와 字說을 지었던 조선중기와 후기 모두 내용은 호연지기를 선비의 기상으로 표현하고 주역의 진으로 군자의 길을 당부하며 요순과 공자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즉 조선시대를 통하여 字의 전통이 이어져오면서 字辭나 字說을 지어 도덕적 자질을 갖춘 유교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이를 내면화 하도록 하는 것을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67) 『田良齊集後編續』, 卷之七, 「曾孫女貞順字辭」, “人有道, 宜敬承. 繼以義, 天順應. 志無貳, 神必凝. 曾祖命, 恒服. 曰敬承.”

## IV. 字의 現代的 活用

傳統冠禮는 몇몇 문중에서 그 명맥을 이어왔지만 일반인에게는 거의 잊혀진 儀禮가 되었다. 이름을 소중히 하여 字를 지어주는 전통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였으나 字를 사용하는 풍속은 남아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傳統冠禮와 笄禮를 현행 성인식과 비교하고 冠禮·笄禮에서 字와 字辭, 字說을 活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傳統冠禮·笄禮와 現行 成年式 比較

冠禮는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무를 일깨우기 위해 올리는 유교의 전통적인 儀禮로 남자아이가 상투를 틀어 올리고 관을 쓰는 冠禮와 여자아이가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笄禮를 아울러 말한다. 즉 冠禮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어린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갖는 사회적 존재로 공인을 받는 儀禮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에서는 사회화과정의 이러한 의미를 관을 씌우고 관에 맞는 옷을 갈아입히는 冠禮를 통해 표출하였다. 우리나라에 언제 冠禮가 들어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시대 때까지 왕실의 儀禮로 존속해오긴 했으나 사대부 儀禮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朱子家禮의 보급과 때를 같이 한다고 추정된다.

『禮記』에서는 冠禮를 태어나서 가장 처음 치루는 공식적인 儀禮로 규정하고 있으나 『禮記』 「冠義」에 기록된 다음의 글로 미루어보면 예부터 冠禮를 가볍게 보아온 것 같다.

儀禮중에 冠禮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처음부터 예로써 사람의 행동을 이끌지 않으면 장차 어른이 된 다음에 바른 예를 실천하기를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고, 옛날 사람들이 해 왔던 행위를 더럽히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朱子는 ‘古禮에 冠禮는 실행하기 가장 쉽고, 단지

한 집안에서 하는 것인데도, 대개 冠·婚·喪·祭禮에서 제일 간편한 冠禮를 시행하는 사람이 드무니 참으로 탄식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sup>68)</sup>

우리나라에서 冠禮에 대한 공식적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광종 16년(965년) 때이다. 고려사 세가에 보면 2월에 아들 旉에게 冠禮를 하고 왕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경종, 예종을 거쳐 원종, 충렬왕 때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태자의 冠禮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고려시대까지의 冠禮는 왕가의 의례로서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을 뿐 일반 사대부나 서민이 冠禮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冠禮가 일반인의 예로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역시 주자가례가 들어온 여말이후 부터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이념의 보급 및 예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관혼상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진다. 태조 4년에 권근에게 명하여 관혼상제의 예를 상정한바 있고 태종 4년에는 의정부에서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15세에 冠禮를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자 왕이 윤허를 내리기도 하였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정치적 안정을 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를 중시하게 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을 중심으로 冠禮를 올리고 字를 지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禮는 형식을 통해 그 시대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조선시대 冠禮의 형식과 내용 속에는 유교적 이념을 근본으로 하여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내용으로 담겨있다.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에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 이상적인 삶을 위해 갖추어야하는 준비를 의미했다. 중종조를 기점으로 해서 冠禮는 사대부 의례로 차차 자리 잡기 시작하였으나 自家에서 행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소홀히 치르는 경향도 있었고 또한 조혼의 풍습으로 혼인의 전제 행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안정복은 경인년 손자 喆重의 冠禮 때에 정한다며 적절히 참작한 冠禮의

68) 이동후, 2007, 『하동상변』, 『禮記』 「冠義」, p.89. 재인용.

“禮 莫重於冠禮，不於成人之初，以禮導之，則將何望其動，遵禮教，以無忝古人之行也。朱子 曰古禮，惟冠禮 最易行，只一家事，蓋四禮之中冠禮最爲簡易，而今人尠有行之者，誠可歎也。”

식절차인 『冠禮酌宜 儀節』을 지었다. 이 글을 통해 보면 冠禮가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末俗이 頑惡하고 頹廢한 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복이 갖추어 있지 않고 宴幣를 마련하기 어려우며 賓이나 贊을 맡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미루고 사양해서 그런 것이다<sup>69)</sup>고 한 것을 보면 冠禮를 올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 32년(1895) 단발령의 시행으로 冠禮의식이 사라졌고 외래사조의 유입으로 조혼의 폐단이 없어짐에 따라 冠禮는 혼례에 포함되어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성년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때부터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에게 집단으로 기념식을 베풀어주는 행사가 시작되었으나 傳統冠禮나 笄禮의 근본정신이 많이 변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알게 하는 데는 부족한 것 같다.

傳統冠禮의 절차는 세 번 갓 씌워주기, 술을 부어놓고 당부하기, 字 지어 주기로 나눌 수 있다. 세 번에 걸쳐 머리에 쓰는 冠을 바꾸어 주는 것은 처음 冠을 씌우면서 가정 내에서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일깨워주고 두 번째 冠을 씌우면서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일깨워준다. 세 번째 冠을 씌워주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일깨워준다. 冠을 더해 가는 절차를 통해 축사를 하고 점점 더 덕이 높아지기를 당부한다. 술을 부어놓고 당부하는 절차를 통해 冠禮를 올리는 주인공을 成人으로 인정하고 예를 완성하며 字와 字辭나 字說를 통해 평생 동안 지켜가야 할 삶의 지표와 덕목을 제시하였다.

예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어 笄禮를 다시 행하는 사람이 없다. 옛날 부인의 관복을 만드는 법도 거의 다 없어져서 참고를 할 수 없으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가례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에 의해 형식이라도 남겨두어 고례를 회복하는 조짐으로 삼고자 한다. 만약 한 두 곳의 크고 훌륭한 가문에서 笄禮를 시작한다면 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69) 『순암집Ⅲ』,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6, p.65.

70) 이동후 『하동상변』, 李緯 『四禮便覽』, p.101, 재인용.

“禮廢既久, 笄禮無復行之者. 古昔婦人冠服之制, 殆廢不考, 可勝歎哉. 今依本文收錄, 以爲羊存, 禮復之漸. 若自一二大家, 始則可以變俗矣.”



『가례』에서는 笄禮의 절차가 冠禮와 같다고 하였고 여자는 15세가 되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笄禮를 행하였다고 하였으나 『四禮便覽』에는 서민들이 행하지 않음을 탄식한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笄禮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여자의 字는 중국에서도 남자에 비하여 드물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드물다. 이것은 여자에게 笄禮를 행하고 字를 지어주는 일이 드물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자의 경우 전통적으로 笄禮는 혼인의 전 단계로서 기능하고 남자아이가 어른이 되는 통과의례로써 字를 지어주는 것과는 달리 여자아이에게는 字를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다. 字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후대에 笄禮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로 생각된다. 여자의 字가 전해지는 것은 허난설헌(1563-1589)으로 명은 초희(楚姬), 字가 경금(景鑾)<sup>71)</sup>이고 간재 전우(1841-1922)가 증손녀를 출가시키기에 앞서 笄禮를 행하고 경승(敬承)이라는 字를 지어준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sup>72)</sup> 그리고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이 지은 『養兒錄』에 손녀 이숙희는 열다섯 살이 되던 해 笄禮를 올리고 혼례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문건이 큰손녀가 결혼 한 후에도 한동안 일기에 '숙희'라는 아명을 그대로 기록하였다<sup>73)</sup>는 것으로 보아 字를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 일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년식은 집체형식으로 진행하며 자유 복장을 하고 현대적으로 하거나 전통복장을 하더라도 字를 내려주는 의식 대신 성년선언과 수훈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통방식으로 진행하는 단체에서도 참가자의 복장을 전통복식으로 갖추고 三加를 하고 醮를 하며 字를 내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절차와 형식에 내재된 정신이 전달되지 못하고 특히 字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체로 진행하는 의식이므로 字辭나 字說을 지어주지 못하고 절차가 거듭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신기한 경험이나 옛날 어른들이 한 것을 체험하는 정도로 인식하

71) 강현규·신용호, 1997, p.56.

72) 『田良齊集後編續』, 卷之七, 「曾孫女貞順字辭」

73) 국사편찬위원회(2009),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주). P36.

는 것 같다.

본 연구자는 冠禮와 笄禮를 올리면서 三加를 하고 醮를 하였으며 특히 字의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字와 字辭나 字說을 지어주는 傳統冠禮와 笄禮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冠禮와 笄禮를 올리는 주인공은 물론 부모에게도 冠禮와 笄禮의 의미를 전달하고 傳統冠禮와 笄禮는 가정에서 올리는 儀禮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조희선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성년식을 한 경우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으나 친구나 선배와 함께 성년식을 한 경우는 청소년기로 부터의 탈출, 해방감에 빠져 탈선의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놀이문화로 그치고 가족이나 어른이 함께 하지 못하였으므로 성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지켜야 할 덕목, 유념할 자세 등을 가르치는 어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sup>74)</sup> 傳統冠禮나 笄禮를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선물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성년식은 친구들끼리 축하해주는 문화로 정착되어가는 현재의 성년식을 제고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2. 冠禮·笄禮에서 字의 活用方案

전통사회 성인들은 자녀들에게 성인으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인정하는 冠禮를 행하였다. 세 번의 갓을 씌워주며 그의 덕이 점차 높아지기를 축하하였으며 관에 맞는 옷을 갈아입히고 대를 매어주었으며 술을 부어놓고 당부하였다.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준 다음 冠禮 때 이름대신 사용할 수 있는 字를 지어주었으며 字辭나 字說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사대부가와 마찬가지로 왕실에서도 冠禮를 중하게 생각한 것 같다. 영조 19년(1743년), 왕은 사도세자가 冠禮를 치른 다음날 친필훈유<sup>75)</sup>를 내려 “넓고도 굳세게 뜻을 세우고 너그러운 마음과 간편한 정책으로 백성을 통치하

74) 조희선 등, 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제5호. p.266.

75) 영조11년(1743년)사도세자가 9세 때 관례를 치른 다음날 영조께서 친히 내린 가르침

며 공평한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똑같이 보고 어진 이를 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라”<sup>76)</sup>고 하였다. 조선말 왕세자<sup>77)</sup> 冠禮 때 의절을 받들고 영회전에서 작헌례를 거행하는 등 왕실의절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sup>78)</sup>한 이만도(響山 李晩燾 1841-1910)의 일기<sup>79)</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임오(고종19년 1882년)정월 십오일

날씨 화창 서합하께서 영의정, 송합하께서 좌의정이 되다. 흥궁군이 冠禮주인이 되고 처음 7인을 간택했다.

임오(고종 19년, 1882년)정월 20일

날씨 화창. 왕세자가 冠禮를 했다.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성대한 예를 보았다. 冠禮주인 흥인군이 찬을 내고 빈은 영의정 서당보였다.<sup>80)</sup>

이 일기는 왕실 冠禮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없으나 왕세자가 1882년 冠禮를 올렸으며 주인과 빈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李晩燾는 왕실 冠禮(1882년)가 있기 2년 전 아들 이중업의 冠禮를 올린 것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일기를 통해 빈을 청하는 시기와 冠禮를 올릴 때 참석하는 사람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경신(고종 십칠년 1880년)이월 칠일

날씨 화창 명(이중업의 아명)의 초례를 하고 사당에 고하였다. 계빈하기에 이르러 진사 이박조 북동에 있는 족형 부자 생일에 왕립하셨다.

경신(고종십칠년 1880년)이월 팔일

- 
- 76) 국립고궁박물관, 2011, 『조선왕실의 각석』, “弘毅立志 寬簡御衆 公心一視 任賢使能.”  
 77) 왕세자는 순종(1874-1926)으로 1875년 세자로 책봉된 후 1882년 1월 20일 관례를 하고 1882년 2월 가례가 있었다.  
 78) 박민영, 2010, 향산 이만도, (주)지식산업사.  
 79) 조선 후기의 학자 이만도(李晩燾, 1842~1910)가 1866년부터 1903년에 이르기까지 38년 동안 일기 형식으로 서술.  
 80) 『響山日記』壬午 (高宗十九年·一八八二年) “正月小戌子朔十五日. 陽. 徐閣爲領相, 宋閣爲左相, 興宮君爲冠禮主人, 初揀擇七人.”  
 壬午 (高宗十九年·一八八二年) 正月小戌子朔 二十日 陽. “王世子冠禮, 以從升□見盛禮, 冠禮主人興寅君, 賓領議政徐堂輔.”

이진사가 밖에 나가 분친 이희조에게 다시 글을 써서 보냈다.

경신(고종십칠년 1880년)이월 구일

비가 음. 중업이 삼가를 하였다. 字는 광초, 빈은 이희조, 찬자는 중묵, 빈자는 중의, 총괄하는 찬자는 익호, 대청(안마루)에서 冠禮를 행하였다.<sup>81)</sup>

이만도의 일기를 보면 아들 이중업(李中業)의 冠禮를 올리기 3일전 龔巖 종손 李羲肇에게 冠禮笏記<sup>82)</sup>와 함께 啓殯書를 보냈으며 하루 전 다시 편지를 보내 宿賓하였음을 알 수 있다. 冠禮는 대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찬자는 이중묵, 안내하는 사람은 이중의, 총괄하는 찬자는 이익호이며 字를 廣初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만도가 아들의 冠禮를 하기 전 賓에게 보낸 편지이다.

만도의 자식 중업이 이제 성인이 되어 장차 이달 9일 그 머리에 관을 올리 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르쳐주실 분을 구하니 모두 말하기를 덕으로나 나이로나 모두 귀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날 외면하지 마시고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만도의 부자에게는 그런 고마움이 없겠습니까. 그리해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1880년 2월 7일 진성 이만도 재배<sup>83)</sup>

啓殯書의 내용을 살펴보면 빈을 청하게 된 연유와 冠禮를 올리는 날짜가

81) 『響山日記』庚辰(高宗十七年·一八八〇年)二月小己亥朔 七日 陽。“以再明兒醮, 告禰廟, 戒賓李進 士珀朝, 往臨北洞族兄父子生日。”

庚辰(高宗十七年·一八八〇年)二月小己亥朔 九日 雨。“業兒三加, 字廣初, 賓李羲肇, 贊者中默, 儻者中儀, 通贊翊鎬, 行禮于大廳。”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82) 관례홀기가 농암중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계빈서와 함께 관례홀기를 보낸 것으로 추측함. 현재 안동국학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음.

83) 眞城 李晚燾. 再拜 奉啓. 李生員執事

晚燾. 有子中業, 年及成人, 將以今月初九日, 加冠於其首, 求所以教之者, 僉曰以德以齒, 咸莫吾子, 宜至日不棄寵臨, 以惠教之, 則晚燾之父子, 感荷無極矣, 未及躬詣門下, 尙祈照亮, 不宣. 庚辰 二月初七日 眞城 李晚燾 再拜. [출처 : 永川李氏 龔巖宗宅 冠禮]

기록되어 있으며 冠禮를 올리기 3일전에 이 글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은 빈으로 오신 李義肇가 李中業에게 字를 지어주고 읽어준 字辭의 내용  
이다.

하늘이 준 밝은 성품을 환하게 빛내어  
마음과 행실이 다르지 않고,  
덕행을 높이고 업적이 넓어야  
하늘이 준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니,  
이는 주자의 소학 머리말이다.  
인간 본연으로 돌아감을 궁구하는 것이  
대학의 궁극적인 공부이다.  
이군 中業은  
字를 廣初라고 한다.  
대개 德이 마음 안에 쌓여짐이 지극히 높으면,  
業이 마음 밖에서 베풀어짐이 더욱 넓게 되어,  
사사로운 물욕이 모두 깨끗하게 없어져서  
능히 그 본연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늘 어릴 때의 마음을 버리고  
날로 어른의 학문 공부에 종사를 하여라.  
그 학문을 넓히고자 한다면 먼저 그 덕을 숭상하여야  
인간 본성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  
성인은 이러한 것을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다복하며  
이 기원을 저버리지 말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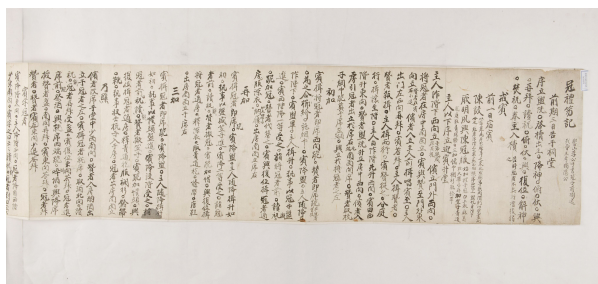
字辭의 내용을 살펴보면 덕을 숭상하여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덕을 마  
음 안에 쌓고 업(業)이 마음 밖에서 더욱 넓게 베풀어져 본연의 성품을 회  
복하는데 힘쓰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는 수준 높은 도덕적 경지를 향해

84) 字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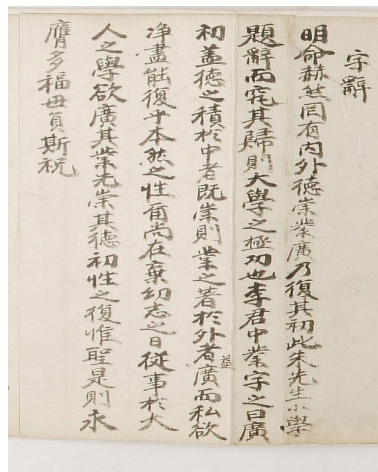
明命赫然，罔有內外，德崇業廣，乃復其初，此朱先生，小學題辭。而究其歸，則大學之極  
功也。李君中業，字之曰廣初。蓋德之積於中者既崇，則業之著於外者益廣。而私欲淨盡，  
能復乎本然之性。爾尚在棄幼志之日，從事於大人之學。欲廣其業，先崇其德，初性之  
復。惟聖是則，永膺多福，毋負斯祝。 국학진흥원所藏.

나아가면서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제국말기의 의병장이며 일제의 강제합병에 항거해 自淨순국하신 響山 李晩燾, 파리장서의거에 참여한 起巖 李中業(1863-1921)의 대를 이은 애국도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1]冠禮홀기



[사진2]字辭

옛 기록을 통해 우리는 왕실에서나 선비집안에서나 자녀가 成人이 되는 儀禮를 중시하였고 그 절차에 정성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賓을 모시고 이름대신 사용할 수 있는 字를 지어주고 字의 의미와 당부의 말을 字辭나 字說로서 지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집안과 문중의 행사로서 성인됨의 책임을 느끼고 나아가 선비의 덕을 쌓아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인간이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집안의 대를 이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郭澍(1569-1617)의 玄風郭氏諺簡에 의하면 장성한 아들의 冠禮를 치르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요사이 아이들 데리고 어찌 계신고  
기별 몰라 염려하네.

모름날 아들 초거례를 하라 하고 고을 어른들이 모두 시키니  
 내일 장에 가서  
 절육할 것을 대구나 아무것이나 사서 쓰도록 하소.  
 술은 먼저 빚어 놓았던 술을 쓰도록 하소.  
 당새기에 넣은 안주를 적으나마 남이 보암직하게 차려 보내소.  
 한 고을 어른들을 다 청하니 너무 초라하게 하지 마소.  
 바빠 이만<sup>85)</sup>

위 글을 통하여 冠禮를 초거례로 표현하였으며 장성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한 고을 어른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冠禮를 지켜보며 사회  
 에서 成人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冠禮에 초대되  
 는 어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儀禮를 마친 후 음식과 술을 먹으며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예전 그대의 冠禮에 그대의 先考께서 子方씨를 賓으로 뽑았고 伯雨가 실로  
 贊者가 되어, 그들 두 사람이 그대를 붙들어 섬돌 위로 인도하고 祝을 읽  
 고 관을 씌워 주어 成人의 의식을 행하였으며, 술을 따라 祭를 올려 그 복  
 을 이루게 하고 절을 하고 字를 지어 그 덕을 표방했으며, 띠와 신을 내려  
 주면서 훈계하는 말을 하였소. 그런데 子方씨와 백우가 죽은 뒤에 그들의  
 고아이자 어린 아우를 모른 척하여 그들의 혼령을 슬프게 한다면 그대가  
 마음이 편안하겠소?<sup>86)</sup>

위의 글은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이 친구인 仲觀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冠禮를 올려주신 賓, 贊者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예를 알고 덕망이 있는 분을 모셨음을 알 수 있  
 다.

85) 백두현, 2011,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도서출판 역락. P111.

86) 연암집, 제5권, 영대정잉묵(映帶亭膺墨)중관(仲觀)에게 보냄.

昔子之冠也, 子之先君子筮賓于子方氏, 伯雨實爲之贊, 揖子升階, 祝而加之, 以成其人,  
 醮而祭之, 以定其祥, 拜而字之, 以表其德, 至于帶履, 皆有訓命之辭. 子方氏伯雨歿, 不  
 有其孤子弱弟, 以戚其遊魂, 子其安乎.

요즈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돌을 맞는 유아를 위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돌잔치가 하나의 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국적불명의 기념하는 날들이 청소년들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비춰보면 전통의 冠禮와 笄禮는 진지함과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儀禮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문중에서는 傳統冠禮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확인<sup>87)</sup>할 수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진입하는 시기에 字의 전통을 살려 字를 지어주고 字의 의미를 담은 字辭와 字說을 지어주는 冠禮·笄禮가 가정의례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字辭와 字說의 現代的 活用

우리는 부모가 지어주신 본명 외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하나로 그 사람의 특징요소(본명, 성격, 행동, 일화, 외모, 특성 등)를 반영하여, 주로 타인에 의해 따로 지어져 불리는 별명이 있다. 별명은 아이의 신체적 특징, 성격, 이름과 관련하여 짓거나 재미삼아 짓는 경우가 있는데 별명의 의미는 상대를 놀리거나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별명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별명을 거부하는 이유로, 별명이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심한 열등감을 일으키며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한다는 보고(박노한, 1978)도 있다. 별명이 주로 형성되는 시기는 언어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고 또래관계 속에서 도당(gang group)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11세에서 16세경으로 보고한(배수자, 2002 ; 민병근외, 1979)연구를 통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걸쳐 별명은 자아존중감을 손상하는 역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별명의 역기능에 비해 字의 의미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보완하고 아이를 격려하며 목표의식을 갖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글은 冠禮와 笄禮를 올리면서 字를 받는 순간의 감상을 적은 글이다.

87) 김시상, 2010, 家禮詳註, 도서출판 온누리. pp.25-52.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字를 받들 때였다.  
 비녀를 뽑고 당의를 차려 입은 후,  
 나의 字를 내려 받을 때 기분은 잊을 수 없다.  
 希之라는 字를 내려 받음으로 써 이제 진정으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들뜬 한편 어른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생긴 것 같다.  
 笄禮를 올리고 난 후,  
 외면상으로 달라진 것은 없으나 내면으로 많이 달라져 옴을 느꼈다.  
 짧은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笄禮를 올리기 전 마음가짐과 笄禮를 올릴 때,  
 올리고 난후의 느낌을 잘 간직하고 나의 字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  
 대학에 가서 또 사회로 나가서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인으로 살고 싶다.<sup>88)</sup>

곧 복장을 갖추고 ‘字’를 받는 순서에서 다른 아이들을 의식하기보다 이 성  
 년례 자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字’를 받는다는 것은 참 기분을 묘하게 만  
 드는 것 같다.

여태 살아오면서 ‘희라’라는 할아버지께서 붙여주신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의 집안배경과 품성, 가족관에 따라 ‘希敬’이라는 字를 받고나니  
 웬지 이제 정말 더 이상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의젓하게 행동하고 항상 신중 하라는 ‘字’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라고 부모님께서 당부해 주실 때에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sup>89)</sup>

위 글은 2006년 12월7일 J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2009년 6월 K고등  
 학교 2학년 학생이 笄禮와 冠禮를 올리고 난후에 적은 소감문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청소년들은 冠禮나 笄禮를 올리면서 冠禮를 올려주시는 賓으  
 로부터 字를 받고 賓이 읽어 주시는 字辭를 듣고 있는 순간에 가장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성인이 된다는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책임감  
 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언제 저렇게 내 딸이 어른이 될 만큼 커서 예쁜 모습으로 전통의식을

88) 2006년 12월 7일 J여자고등학교 笄禮

89) 2009년 6월 일 K고등학교 冠禮

치르고 있다는 말인가?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말미에 부모에게 큰 절을 할 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생략-

옛날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통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을 해 본다.

어쨌든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상투만 틀면 어른이 된다.” 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어른이 되기는 쉬워도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90)

부모가 자식을 성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성장시킴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예절원 선생님들 덕분에 훌쩍 커서 남자가 되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明遠 父 올림91)

전자의 글은 笄禮를 올리는 자녀를 지켜보며 어머니가 느낀 소감이며, 후자의 글은 冠禮를 올린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카페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통해 부모들도 자녀가 成人이 되는 절차를 감동적으로 지켜보며 한 成人으로 대우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년례에서 부모의 역할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희선등(2002)은 성년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학교 또는 단체에서 성년식을 하는 경우 의식의 진행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게 하는 성년식을 가족문화와 사회문화로 정착시켜 나가야함을 제안하고 있다92).

위의 글을 통해 보면 가정에서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冠禮나 笄禮를 통하여 字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字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字를 짓는 의미와 字의 상세한 뜻을 전달하고 한 집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생동안 명심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일

---

90) 2010년 4월 D교육대학교 笄禮

91) 2012년 11월 11일 영남대학교 구계서원에서 冠禮를 마친 후 카페에 올린 글

92) 조희선, 이해자, 이윤정, 2002, p.267.

러주고 새로운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면 청소년들은 字에 담긴 뜻을 통하여 자신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字辭와 字說을 현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字辭와 字說의 문장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은 2012년 9월 2일 형제가 전통방식으로 冠禮를 올릴 때 賓이 지어준 字辭이다.

이번 여름 우리 일행이 천자문 공부를 할 때 장한식 회장이 아들 형제와 함께 오셔서 안부를 하기에 만약 문안의 일이라면 장회장이 혼자 올 터인데 그 아들과 동행하는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 사연을 듣고 보니 형제 冠禮를 하는 일이었다. 얼마 뒤 두 아들의 字를 짓고 冠禮 賓을 해 달라고 청하니, 내가 이미 늙은 몸으로, 학문도 거칠고 볼품이 없고 文脈도 자꾸 막히고 매끄럽지 못하여, 하는 말은 분명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해도 철저히 못하니, 내가 어떻게 그 기대에 따라 응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장회장이 하는 일은 예절원의 중추이며 또 부부가 심혈을 기울여 예절원을 우뚝 서게 하고, 지내온 인연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나와 그 사람과 서로 무척 정감이 넘치게 대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양할 수 있겠는가? 93)

이 단락은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冠禮를 올리는 형제의 아버지께서 賓을 찾아와 賓이 되어 冠禮를 올려주기를 청하였고 賓과 주인과의 관계, 賓을 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문집에 기록된 字辭와 字說도 서두에는 글을 쓰게 된 연유나 字辭와 字說을 부탁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字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서두 부문에서 관심 깊

---

93) 2012년 9월2일 영남대학교 구계서원에서 올린 장혁준 장혁진 형제 冠禮(賓 李東厚) 字辭 張赫峻 世峻 張赫珍 世珍  
今夏予之一行，千字文講究時，張漢植會長 與子兄弟枉顧安否，若問安之事，張會長獨行，未知其子同行之意也。此後得聞事緣，兄弟冠禮之事也。數日後 請其子兩君，作字兼請冠賓，予老矣 學問之荒落也，文脈之蹇澁也，言辭而不分明，對談而未底蘊，予何由塞其責？然張會長之役，禮節院樞機，且夫婦心血傾注，特壯立院，不爲非積功，不爲非舊 又今之彼此，其情油然，何謝謙乎？

게 볼 것은 ‘왜 賓과 冠者의 가정과의 관계를 설명 할까’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賓이 되었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나중에 끝부분에서 ‘기대와 바람을 간절히 말할 때 冠者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나와 너의 관계를 설명해줌’으로 字辭의 의미를 더 깊게 冠者의 가슴에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들은 엄한 아버지 가르침과 자애로운 어머니 정으로 어릴 때부터 인성과 가정의 화목함을 정성껏 받고 자랐다. 형 준혁군은 여러 면으로 공부를 하고 공인회계와 법학에 관심을 가져 그 뜻을 사해에 널리 펴고자 하며 그 아우 혁진군은 창공 만리에 사나이 기개를 펴고 온 천하에 애국을 할 것이니 가히 세상을 덮을 만하다. 그러므로 그 字를 世峻과 世珍이라 한다.<sup>94)</sup>

이 단락은 형제가 받아온 가정교육과 가정의 분위기, 형제의 목표, 희망에 따라 字를 짓게 된 경위를 서술하거나 字를 받는 사람의 인성과 궁극적인 삶의 목표, 字가 의미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字辭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음’을 알게 하여 ‘어떠한 기대나 당부’를 하였을 때 ‘冠者 자신이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赫峻 赫珍아

옛말에 넷물이나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들고, 산이나 숲이 무성하면 새와 짐승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사람이 후덕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의가 잘 갖추어 있으면 군자들이 모여든다. 그러므로 예의가 몸에 갖추어지면 행실이 잘 닦여진다.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회고 검은 것이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눈은 보지를 못하고, 천둥소리·북소리가 옆에서 들린다 하더라도 그의 귀

94) 兒輩 峻嚴庭訓，慈母之情，自幼人性，和睦家庭，得誠成育也。其兄赫峻君，諸學習得，有念公認會計及法學，其志四海頒布，其弟赫珍君，蒼空萬里，鋪男氣概，愛國萬邦，可謂蓋世也。故其字曰世峻世珍也。

는 듣지 못한다.

성인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술법에서 환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마음이 가려져 막힘으로써 생기는 화를 통찰한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도를 아는가? 그것은 마음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떻게 도를 아는가? 그것은 마음이 텅 비고 한결같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가려짐이 스스로 몰려온다. 욕심에 가려지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가려지기도 하며,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일을 끝낸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며, 멀리 있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며, 넓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얇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며, 옛것의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지금의 생각에 가려지기도 한다.

모든 만물은 서로 다른 한편만을 생각하니 서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마음을 쓰는 술법의 공공연한 걱정이다. 그러니 세상인심을 살피며 字의 뜻을 깊이 새겨 공경하고 경계하여라.<sup>95)</sup>

이 단락은 冠禮를 하는 형제에게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과 닦아야 할 덕목을 경전의 구절을 통하여 제시하며 당부하는 내용이다. 특히 예의를 갖추고 마음을 비우고 한결같이 고요히 하여 도를 알고 덕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禮記』「冠義」에 “冠禮를 예의 시작이라고 하며 경사스런 일로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冠禮를 중요하게 하려고 사당에서 행한 까닭”<sup>96)</sup>이고, 이렇게 冠禮를 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冠禮를 통해서 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해주려는 것이다. 冠禮를 주관하는 사람은 冠禮를 한 당사자에게 사당에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成人이 되게 하고 그 자리를 옮겨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바를 간절한 말로 당부하여 행

95) 赫峻 赫珍乎! 古語 川淵深而魚鱉歸之, 山林茂而禽獸歸之, 人厚德而衆人歸之, 禮義備而君子歸之, 故 及身行修. 心不使焉, 則白黑在前而目不見, 雷鼓在側而耳不聞. 聖人 知心術之患, 見蔽塞之禍. 人何以知道? 曰心. 心何以知? 曰虛壹而靜. 然心自招爲蔽也. 其例 欲爲蔽, 惡爲蔽, 始爲蔽, 終爲蔽, 遠爲蔽, 近爲蔽, 博爲蔽, 淺爲古爲蔽 今爲蔽. 凡萬物異則莫不相爲蔽. 此心術之公患也. 故察世心, 銘心字義, 敬之戒之.

96) 『禮記』「冠義」, “冠者, 禮之始也, 嘉事之重者也. 是故, 古者重冠, 重冠故, 行之於廟.”

사의 大尾를 마무리 짓는 것이 字辭이다. 이런 경향은 字說이나 名說에서도 같은데 조선 초기 학자인 河崙이 자기 아들 이름에 대한 說에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날마다 줄어 들 것이고 날마다 퇴보하여 반드시 소인배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것을 삼가고 너는 부지런하여라.”<sup>97)</sup>라고 說을 마무리를 한 것에서도 그 경향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字辭를 개인 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라면 字를 받는 사람이 인간적인 느낌을 덜 받게 될 것이고 ‘으레 어른들이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 당사자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굳게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들의 거친 행동을 탓하며 사후에 치료방법에만 몰두하고 사전 심성지도는 소홀하게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청소년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만 국한하는 오류를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오늘날에도 冠禮를 하는 의미와 字의 뜻을 전하며 인생의 좌표를 제시하면서 부모와 집안의 염원을 따뜻하게 담은 字辭나 字說을 지어 준다면 이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로 잡고 청소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97) 河崙, 『浩亭集』 卷之二, “不然, 日損日退, 必爲小人之歸矣. 汝其敬之, 汝其勉之.”

## V. 결론

가정과 사회는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가정과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조선시대 가정윤리체제는 전통을 숭상하고 효와 경로사상을 행동화하는 것을 이상으로 했으며 자기 수양을 최고 덕목으로 하는 修己治人의 행동관을 숭상하는 윤리체제였다. 즉 유학을 통한 仁·義·禮·智를 위한 선비교육에 힘썼다. 부자관계가 가정의 주축을 이루면서 전통을 숭상하고 효도와 경로사상을 행동화하였으며 자기 수양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修己治人의 행동관을 이상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에 이상적 인간상은 유학을 전문으로 하고 이를 실천하는 선비였다. 선비의 역할 수행은 인륜을 밝혀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다하며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몸을 닦으며 뜻을 세우는 것이다. 선비는 시대이념의 수호자로서 의리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해관계와 의리가 충돌할 때에는 이해를 버리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의 선비를 ‘자신의 인격적 중심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확고한 가치관에 따른 신념과 굳은 지조를 갖추어 공정하며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이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 아동들이 학문을 하는 목적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함이었다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시대 名 字 說을 살펴보면 성현의 도를 배워 실행하며 일상생활에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행동 규범을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시민사회에서도 선비정신을 일반적 덕성으로 다듬어 가면 품위 있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의 역사와 미래를 좌우 할 청소년들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지도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정체성 대 정체성 혼란의 시기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자기다운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유예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갈등적 시기이며 특히 문제행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때는 대개 중학교 시기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청소년기 적응 및 문제행동 경험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이 단계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기이다.<sup>98)</sup>

성인식이 없는 사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 우주의 근본 원리와 맞닿아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려면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전의 형식을 모두 갖추기는 힘들다 해도 그 정신을 계승하여 현시대에 적합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99)</sup>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傳統冠禮라는 이상적인 성인 의례가 있어왔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현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거의 계승되지 않고 그 의미도 대부분 상실되었지만 우리의 傳統冠禮가 성인이 되는 의식을 가장 의미 있게 표현해내고 있으며 또한 상징성 있는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傳統冠禮를 간소화하거나 현대식으로 재구성하여 재현해볼 필요가 있다<sup>100)</sup>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傳統冠禮의 절차 속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를 살려내려면 오히려 그 절차를 생략하지 않고 경건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의례를 집안중심으로 시행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冠禮를 통하여 성인이 된다는 의미와

98) 문영숙, 2008, 부모-자녀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99) 장윤수, 2010, 현대사회와 예절문화, 양서원. p.37.

100) 장윤수, 2010, p.38.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冠禮의 축사를 통해 점점 덕이 높아지고 字와 字辭나 字說을 통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규범과 인생의 좌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字의 전통을 살려 현대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嶠南科榜錄』에 기록된 인조(1603)에서 개화기까지 문과합격자를 대상으로 字를 사용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합격자의 54%가 사용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연령에 이르러서도 冠禮를 올리지 않았거나 字와 字辭나 字說을 지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字를 作字 傾向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이름과 뜻이 동일한 字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이름과 字는 훌륭한 뜻이 함유되어 있고 이름과 字가 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지었다.

둘째, 조선중기부터 조선후기까지 영남지방 문과 합격자 가운데 字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聖이고 그 다음이 景, 德, 士, 文의 순서인데 유학에서 추구하는 이상형이 聖人이며 한 글자의 字를 통해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지표와 이상적인 인간형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字辭와 字說의 내용변화를 분석한 결과, 조선시대 선비들이 추구하던 도덕적 가치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말 이집의 字說은 당시 사대부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담겨 있으며 조선후기 실학자인 안정복의 字辭는 당시의 선비들이 지향해야 할 것과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었다. 개화기 전우가 지은 字辭는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이 관념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字辭나 字說을 통하여 字의 의미를 확충하고 도덕적 자질을 갖춘 유교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평생을 통하여 이를 내면화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字를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冠禮나 笄禮를 통하여 字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하고, 특히 字辭나 字說을 지어 字를 짓는 의미와 字의 상세한 뜻을 전달하면서 한 집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생동안 명심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일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가정에

서 字를 지어주면서 冠禮를 올려주었던 전통을 이어 자녀들에게 冠禮를 올려준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冠禮를 올려주시는 賓을 평생의 멘토로 삼는다면 청소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자녀가 成人이 되는 儀禮를 중시하였고 그 절차에 정성을 들였다. 사회가 그 구성원을 成人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성년례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고 부모도 자녀가 成人이 됨을 인식하는 儀禮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집안과 문중의 행사로서 성인됨의 책임을 느끼고 나아가 인격적으로도 평생을 통하여 완성된 인간이 되도록 당부하며 집안의 대를 이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家庭儀禮로 자리매김하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족공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가정의 애정적,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字와 字辭나 字說를 지어주는 傳統冠禮와 笄禮를 가족과 친척 중심으로 올려주는 것을 제안하며 지금까지 20세가 되면 성년식을 해야 한다는 관습에서 벗어나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冠禮와 笄禮를 올려줄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成人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전통방식으로 성년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字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치고 字辭나 字說을 지어주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에게 건전한 사회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정신적 원동력으로 살려 내야 할 가치-전통의 字辭와 字說에 담긴 가치-들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달한다면 傳統冠禮는 전통의례의 맥을 이어 가정의례로 되살려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冠禮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傳統冠禮를 형식에 얽매인 복잡한 儀禮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학교, 사회에서 冠禮의 의미와 절차를 교육해 나가면서 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字와 字辭나 字說의 형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 【參考文獻】

### 1. 저서

#### 단행본

- 김시상, 2010, 『家禮詳註』, 도서출판 온누리.  
국사편찬위원회, 2009,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주)두산동아.  
금장태, 1995,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박민영, 2010, 『향산 이만도』, (주)지식산업사.  
백두현, 2011, 『한글편지로 본 조선시대 선비의 삶』, 도서출판 역락.  
신용호, 강현규 공저, 1997, 『선현들의 字와 號』, 전통문화연구회.  
이동후, 2007, 『霞洞常變』 通禮 및 冠·笄禮, 영한출판사.  
이두희외 편저, 1988, 『한국인명자호사전』, 계명문화사.  
장윤수, 2010, 『현대사회와 예절문화』, 양서원.  
진필상지음, 김경호옮김, 1995,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 영인본

- 『禮記』  
『家禮增解』  
『家禮輯覽』  
『牧隱文集』  
『良齋集』  
『毅菴先生文集』  
『響山日記』  
『嶠南科榜錄』  
『順菴集』

## 2. 논문류

- 김상보, 1989, 「韓國 傳統冠禮의 研究」, 嶺南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김선숙, 2008, 「冠禮의식 및 복식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평생대학원.
- 김시덕, 2009, 「한국일생의례의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제 39집.
- 김시황, 1999, 「韓國 冠禮 竿禮 研究」 『동양예학』 제3집, 동양예학회.
- 김소현, 2010, 「조선후기 왕실여성의 冠禮복식 연구」, 『복식』 제60권 No5, 한국복식학회.
- 김정신·조희진, 1999,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모형」, 『논문집』 21집, 暎園專門大學.
- 김정화, 2010, 「성년례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 1960년 이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 김현욱, 권동택, 2008, 「초등학생별명의 특성과 사회적 상호관계분석」, 『한국교육』 논단7, No.1.
- 김혜경, 2001, 「한국 冠禮 복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 2008, 「전통 冠禮와 현대 성년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남후선, 2002, 「士冠禮服飾의 形態와 意味」, 『유교사상연구』, 韓國儒敎學會.
- 도민재, 2003, 「儒敎 冠禮의 사회적 의미」, 『유교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 문영표, 2004, 「사례편람과 거가잡복고의 복식연구 : 冠禮와 혼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대순, 1987, 「朝鮮時代 冠禮의 史的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원중, 2006, 「市南의 『家禮源流』의 學脈과 冠禮에 대한 研究」, 『동서철학연구』 제41호, 韓國東西哲學會.
- 송재용, 2010, 「『목재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혼상제례」, 『한문학논집』 30집.
- 신상구, 2010,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문왕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2집.
- 이길표·김진숙, 2000, 「〈增補四禮便覽〉을 통해 본 冠禮」,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 이문주, 2002, 「성인식으로서의 冠禮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제 17집, 韓國儒敎學會.
- 이은영, 2006, 「축사와 자설을 통해 본 冠禮 :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여름호, 제29권, 제2호.
- 이윤정, 2002, 「冠禮의 절차·복식에 내재된 의미」,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재, 2000, 「한국의 전통冠禮와 성인의 의미」, 『동양예학』 제5집, 동양예학회.
- 조창규, 2007, 「儒家 冠禮의 文化解釋」, 大東漢文學會.
- 조희선, 이혜자, 이윤정, 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제 5호, 생활과학연구소.

### 3. 참고 사이트

한국고전번역원 : <http://www.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부록1. 作字傾向에 따른 분류(교남과방록 권2 인조1603-영조1775)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1	金應祖	응하다 할아버지	孝徵	효도하다 부르다	意同	
2	申達道	통달하다 도	亨甫	형통하다 남자	意同	美稱
3	全致信	다하다 믿다	景實	크다 가득하다, 진실하다	意同	
4	郭崦	산	子立	그대 서다	美稱	意同
5	洪靄	비오다	伯升	만이 오르다	序列	謙虛
6	金克恒	능하다 항상	德吉	덕 길하다	謙虛	
7	呂悼	두려워하다	晦仲	어리석다 둘째	意同	序列
8	鄭杺	수레 굴대	文中	글월 가운데	意同	
9	朴敦復	돈독하다 회복하다	無悔	없다 모든 것을 다하다	進就	
10	金天瀄	하늘 이슬기운	大源	크다 근원	意同	
11	南磳	옥돌	鍊夫	단련하다 사내	意同	美稱
12	全益禧	이롭다 복	子綏	그대 편안하다	指稱	進就
13	李揚	산이름	彥瞻	선비 우리러 보다	美稱	進就
14	金宗一	으뜸 하나	實之	가득차다 그것	意同	虛辭
15	金洗金	씻다 쇠	汝精	너 깨끗하다	指稱	意同
16	都愼終	삼가다 돌아가신 부모	永叔	길다 차례가 셋째이다	經在	序列
17	郭灑	물이 넓고 깊다	彥叔	크다 차례가 셋째이다	意同	序列
18	鄭弘緒	넓다 실마리	克承	능하다 계승하다	進就	
19	李回寶	돌다 보배	文祥	글월 상서롭다	意同	
20	張應一	응하다 하나	經叔	경서 차례가 셋째이다	經在	序列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21	黃益淸	더하다 맑다	應叔	응하다 차례가 셋째이다	謙虛	序列
22	李汝翊	너 돕다	斐卿	돕다 벼슬	意同	
23	李尙逸	숭상하다 편안하다	汝休	너 쉬다	指稱	意同
24	韓克述	능하다 펴다	光甫	빛 남자	進就	美稱
25	李道長	도 길다	泰始	크다 시작하다	意同	
26	金是權	옳다 독점하다	子中	그대 가운데	美稱	謙虛
27	李崇彦	숭상하다 선비	容伯	포용하다 말이	謙虛	序列
28	曹挺融	빼어나다 성하다	維瞻	생각하다 우리러 보다	謙虛	
29	洪柱一	기둥 하나	一之	하나 그것	同字	虛辭
30	河潛	물이름	晉伯	진나라 말이	同字	序列
31	蔡楸	무성하다	子後	그대 뒤	美稱	進就
32	徐忭	기뻐하다	子慶	그대 경사롭다	美稱	意同
33	韓克昌	이기다 창성하다	裕伯	넉넉하다 말이	意同	序列
34	權搏	두드리다	天游	하늘 놀다	意同	
35	金好哲	좋다 밝다	機之	기틀 그것	意同	虛辭
36	盧峻命	높다 밝다	正而	바르다 허사	經在	虛辭
37	李爾松	너 소나무	壽翁	목숨 늙은이	意同	
38	金鳴遠	울다 멀다	道以	도 허사	進就	虛辭
39	呂孝會	효도 모이다	魯而	노둔하다 허사	經在	虛辭
40	曹時亮	때 밝다	寅叔	크다 차례가 셋째이다	意同	序列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41	郭弘址	넓다 터	子久	그대 오래다		進就
42	李廷相	조정 재상	立卿	서다 벼슬	意同	美稱
43	申弘望	넓다 바라다	望久	바라다 오래다	同字	
44	李元圭	근원 별	器哉	그릇 허사	進就	虛辭
45	朴安復	편안하다 회복하다	仲雷	벼금가다 우레	序列	經在
46	金 頊	삼가하다	愼伯	삼가하다, 맡이	意同	序列
47	李維碩	오직 크다	大而	크다 허사	意同	虛辭
48	權 寔	둘리 싯 담	宅甫	집 자	意同	美稱
49	李 洄	멀다	巨卿	크다 벼슬	意同	美稱
50	黃立信	서다 믿다	子實	그대 채우다	美稱	意同
51	鄭維地	생각하다 땅	重候	무겁다 제후	意同	
52	孫處愼	처하다 삼가하다	思叔	생각하다, 차례가 셋째이다	進就	序列
53	羅以俊	허사 준걸	宅于	집, 광대하다	進就	
54	南天漢	하늘 한나라	章宇	글 집	進就	
55	郭 研	연마할 연	會夫	모이다 남자	意同	美稱
56	李尙彦	숭상하다 선비	容叟	수용하다 늙은이	意同	
57	李燦漢	빛나다 한나라	子昭	그대 밝다	美稱	意同
58	金以載	허사 신다	仲厚	둘째 두텁다	序列	意同
59	李廷機	조정 기틀	子愼	그대 삼가하다	美稱	謙虛
60	李希楸	바라다 무성하다	德滋	덕 많아지다	意同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61	南天澤	하늘 은택	蘇宇	되살아나다 집	進就	
62	金 鋹	붉은 쇠	子珍	그대 보배	美稱	意同
63	趙又新	또 새롭다	汝緝	너 모으다	指稱	進就
64	張俊南	준길 남녘	濟卿	건너다 벼슬	經在	美稱
65	金堯欽	요임금 공경하다	順之	따르다 그것	經在	虛辭
66	金慶遠	경사롭다 멀다	善裕	선하다 넉넉하다	意同	
67	李溟翼	어둡다 돕다	萬里	일만 마을	意同	
68	鄭繼胄	계승하다 字손	子述	그대 퍼다	美稱	意同
69	李時?	때	聞遠	소문 멀다		
70	申 圭	별	君甫	임금 남자	意同	美稱
71	南夢賚	꿈 주다	仲遵	둘째 따르다	序列	意同
72	都愼與	삼가다 주다	明叔	밝다 차례가 셋째이다	意同	序列
73	柳挺輝	빼어날 정, 빛날 휘	仲謙	둘째 겸손하다	序列	謙虛
74	李元禎	근원 상서롭다	士徵	선비 밝히다	美稱	意同
75	李東溟	동녘 큰 바다	百宗	온갖 으뜸	進就	
76	具 峯	힘준하다	次山	버금가다 산	意同	
77	李 球	옥	大玉	크다 옥	意同	
78	柳 椿	주춧돌	仲吾	둘째 그대	序列	進就
79	洪汝海	너 바다	伯原	만이 근원	序列	經在
80	郭世翼	세상 도우다	九萬	아홉 일만	進就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81	李亨千	형통하다 일천	翼世	도우다 세상	進就	
82	姜汝?	너	啓叔	열 차례가 셋째이다		
83	崔鎮南	진압하다 남녘	子重	그대 중하다	美稱	意同
84	李楷	본보기	元禮	근원 예	意同	
85	李耆徽	늙다 빛나다	大年	크다 혜	意同	
86	郭後昌	뒤 창성하다	興叔	일어나다 차례가 셋째이다	意同	序列
87	李達意	통달하다 뜻	以正	허사 바르다	虛辭	意同
88	孫湍	여울	深源	깊다 깊다	謙虛	
89	金聰	옥돌	仲輝	둘째 빛나다	序列	進就
90	李在容	있다 용납하다	爾能	너 능하다	指稱	意同
91	朴仁基	어질다 터	公耳	공정하다 귀	進就	
92	李英甲	빼어나다 갑字	善鳴	착하다 울다	進就	
93	金兌一	빛나다 하나	秋伯	가을 말이	經在	序列
94	金啓光	열다 빛	景謙	크다 겸손하다	謙虛	
95	權道興	도 일어나다	泰然	크다 그리하다	意同	
96	金厦挺	큰집 빼어나다	長卿	길다 남자존칭, 그대	意同	美稱
97	李元祿	근원 복을 내리다	士興	선비 일어나다	美稱	意同
98	宋光璧	빛 옥	文星	빛나다 별	意同	
99	金海一	바다 하나	宗?	으뜸		
100	金聖佐	성인 둑다	仕卿	벼슬 남자존칭, 그대	意同	美稱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101	康遂學	이루다 배우다, 학문	遠甫	멀다 남자	進就	美稱
102	金重南	무겁다 남녘	德輝	덕 빛나다	進就	
103	辛蕃	우거지다	孟衍	만이 넘치다	序列	意同
104	金光國	빛, 빛내다 나라	國耳	나라 귀	同字	
105	金聲久	소리 오래다	德休	덕 쉬다	進就	
106	孫萬雄	일만 용감하다	敵萬	싸우다 일만	同字	
107	崔恒	항상	和仲	온화하다 둘째	進就	序列
108	權尙任	맡기다	士重	선비 무겁다	美稱	進就
109	權萬濟	일만 건너다	世卿	인간 남자존칭, 그대	進就	美稱
110	李聃命	귀밭다 목숨	耳老	귀 노련하다	意同	
111	李俊擎	준걸 들다	汝枉	너 굽다	指稱	謙虛
112	南鵬翼	붕새 날개	子舉	그대 일으키다	美稱	義同
113	南天祥	하늘 상서롭다	瑞吾	상서롭다 나	義同	
114	朴身之	몸 그것	履卿	밟다 벼슬	謙虛	美稱
115	辛苾馨	향기롭다 향기	明汝	밝다 너	進就	指稱
116	權霏	때 맞춰 오는 비	德雨	덕 비	義同	
117	都處亨	처하다 형통하다	會卿	모이다 남자존칭, 그대	進就	美稱
118	李漢命	한수 목숨	南紀	남녘 법칙		
119	柳世鳴	대 명성을 날리다	爾能	너 능하다	指稱	進就
120	李文興	글월 일어나다	質甫	질박하다 사내	謙虛	美稱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121	李玲	힘한 언덕	瞻叔	우러리 보다 차례가 셋째이다	進就	序列
122	琴聖奎	성인 별이름	文叔	글월 차례가 셋째이다	意同	序列
123	蔡獻徵	드리다 상서롭다	文叟	빛내다 늙은이	經在	
124	盧碩賓	크다 손	大觀	크다 보다	義同	
125	權壽朋	장수 벗	眉瑞	눈썹 상서롭다	義同	
126	李海準	바다 본보기로 삼다	季度	끝 범도	序列	義同
127	李東標	동넉 나타내다	君則	임금 법칙, 모범	進就	
128	羅學川	배우다 시내	師道	스승 도리	遵賢	
129	孫德升	덕 오르다	玄叟	현묘하다 늙은이	謙虛	
130	金汝鍵	너 열쇠	天開	하늘 열다	進就	
131	金壽聃	장수 귀밝다	龍在	용 있다	經在	
132	李碩意	크다 뜻	裕叔	넉넉하다 차례가 셋째이다	義同	序列
133	都永夏	길다 여름	子華	그대 빛나다	美稱	進就
134	金華重	빛나다 무겁다	士秀	선비 빼어나다	美稱	義同
135	趙德純	덕 순하다	顯甫	드러나다 사내	進就	義同
136	李適意	적합하다 뜻	以達	허사 통달하다	虛辭	進就
137	金南甲	남넉 첫째	國賓	나라 손님	義同	
138	金萬柱	일만 기둥	仲能	둘째 능하다	序列	進就
139	朴聖世	성인 인간	皞如	밝다 같다	進就	
140	宋泰基	크다 터	汝亨	너 형통하다	指稱	進就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141	金遇一	만나다 하나	時中	때 가운데	經在	
142	李柱天	기둥 하늘	爾能	너 능하다	指稱	謙虛
143	郭壽龜	목숨 거북	元錫	근원 주다	謙虛	
144	趙德隣	덕 이웃	宅仁	집 어질다	謙虛	
145	南九明	아홉 밝을	?瑞			
146	鄭堯天	요임금 하늘	聖則	성인, 법칙	義同	
147	都永成	길다 이루다	遠卿	멀다 버슬	義同	美稱
148	金泰重	크다 무겁다	士守	미혼 남자 지키다	美稱	謙虛
149	柳敬時	공경하다 때	欽若	공경하다, 같다	義同	
150	權斗紀	말 기록하다	叔章	차례가 셋째이다 글	序列	義同
151	孫景錫	빛나다 주다	仲伯	버금가다 만이	進就	序列
152	崔慶是	경사롭다 옳다	善餘	선하다 남다	義同	
153	尹佑甲	도우다 잡	任卿	맡기다 남자 그대	進就	美稱
154	安后靜	임금 고요하다	君敬	임금 공경하다	謙虛	
155	任后靜					
156	金重兼	무겁다 겸하다	粹彥	순수하다 크다	義同	美稱
157	朴希顔	바라다 얼굴	景愚	우리러보다 어리석다	經在	
158	李基命	터 목숨	定叔	정하다 차례가 셋째이다	義同	序列
159	朴泰斗	크다 말	景瞻	크다 우리러 보다	進就	
160	李柱世	기둥 인간	原安	근원 편안하다	謙虛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161	張后相	임금 재상	夢與	꿈 참여하다	進就	
162	李重培	무겁다 복돋우다	華重	빛나다 무겁다	同字	
163	金正龜	바르다 거북	正則	바르다 법	同字	
164	呂命舉	명 들다	天卿	하늘 벼슬	義同	美稱
165	金始鑣	처음 빛을내다	休伯	아름답다 말이	進就	序列
166	權萬樞	일만 지도리(사물의 기관)	중요한 景運	크다 움직이다	義同	
167	成起寅	일으키다 범	天祥	하늘 상서롭다	遵賢	
168	文德龜	덕 거북	士呈	미혼남자 드리다	美稱	義同
169	柳鳳鳴	봉새 울다	德輝	덕 빛나다	經在	
170	李增祿	더하다 복을 내리다	天與	하늘 주다	義同	
171	權斗經	말 경서	天章	하늘 글	進就	
172	姜必中	반드시 가운데	和卿	온화하다 남자	謙虛	美稱
173	權相一	돕다 하나	台中	크다 가운데	進就	
174	洪僕	가볍다	世傑	인간 걸출하다	進就	
175	蔡命運	목숨 움직이다	汝吉	너 길하다	指稱	進就
176	金道應	도 응하다	行彦	행하다 크다	意同	美稱
177	金履萬	밟다 일만	仲綏	버금가다 편안하다	序列	意同
178	李命夔	목숨 조심하다	聖弼	성인 돕다	遵賢	
179	權斗紘	싸우다 벼리	少章	짧다 글	謙虛	
180	申維翰	생각하다 문서	周伯	두루 말이	進就	序列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181	金聖龜	성인 거북	時則	때 본받다	義同	
182	朴泰彙	크다 무리	明彥	밝다 크다	義同	美稱
183	柳升鉉	오르다 술귀	允卿	마땅하다 남자, 그대	義同	美稱
184	金夏九	여름 아홉	鼎甫	술 남자	經在	美稱
185	申正模	바르다 본받다	景楷	크다 본보기	義同	
186	李麟興	기린 일어나다	聖瑞	성인 징조	義同	
187	金東俊	동녘 준걸	伯兼	만이 겸하다	序列	謙虛
188	權一慶	하나 경사	克章	능하다 글	經在	
189	金鼎九	술 아홉	鉉甫	술귀 남자	義同	美稱
190	金?		達夫	통달하다 사내		
191	金聲	소리	鳴遠	울 멀	義同	
192	金五應	다섯 응하다	宋瑞	송나라 상서롭다	經在	
193	李壽海	목숨 바다	一如	하나 같다	謙虛	
194	李濟兼	구제하다 겸하다	善卿	선하다 남자, 그대	義同	美稱
195	權 萬	일만	一甫	하나 사내	謙虛	美稱
196	李觀厚	보다 두텁다	大觀	크다 보다	同字	
197	李柱泰	기둥 크다	東望	동녘 바라다	義同	
198	柳文龍	글월 용	明仲	밝다 둘째	經在	序列
199	李 權	저울대	君平	임금 평평하다	謙虛	
200	孫以雄	허사 옹장하다	萬夫	일만 사내	義同	美稱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201	鄭玉	구슬	子成	그대 이루다	美稱	進就
202	張緯恒	씨줄 항상	天應	하늘 응하다	進就	
203	鄭重器	무겁다 그릇	道翁	도덕 늙은이	進就	
204	朴時泰	때 크다	以享	허사 드리다	虛辭	意同
205	權萬元	일만 만, 근원 원	善伯	선하다 말이	義同	序列
206	李山斗	되 말	子昂	그대 높다	美稱	義同
207	金宅魯	머무르다 노둔하다	得而	얻다 허사	進就	虛辭
208	金景泌	빛나다 물흐르다	源仲	근원 들째	意同	序列
209	柳觀鉉	보다 솔귀	用寶	쓰다 보배	進就	
210	朴弘僑	넓다 준걸	子敬	그대 공경하다	美稱	謙虛
211	李象靖	본받다 다하다	景文	크다 글월	意同	
212	南泰運	크다 움직이다	和甫	온화하다 사내	意同	美稱
213	南龍震	용 우뢰	國輔	나라 뚝다	經在	
214	鄭東潤	동녘 윤택하다	潤卿	윤택하다 벼슬	同字	美稱
215	李世震	인간, 꽤 이름 떨치다	亨伯	형통하다 말이	經在	序列
216	河必淸	반드시 맑다	千期	일천 기간	進就	
217	權尙龍	숭상하다 용	龍如	용 같다	同字	
218	金 墜	마을	巨卿	막다 남자, 그대	意同	美稱
219	權達國	통달하다 나라	汝直	너 바르다	指稱	意同
220	南溟翼	어둡다 날개	雲游	구름 헤엄치다	經在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221	朴斗相	말 돕다	子昂	그대 오르다	美稱	意同
222	南濟萬	구제하다 일만	汝兼	너 겸하다	指稱	謙虛
223	白思淵	생각 깊다	德哉	덕 허사	謙虛	虛辭
224	李沂中	물어름 가운데	叔精	나이가 어리다 고요하다	序列	經在
225	高 裕	넉넉하다	順之	따르다 허사	謙虛	虛辭
226	李世泰	인간 편안하다	季道	끝 도	序列	意同
227	李世師	인간 스승	象心	본뜨다 마음	謙虛	
228	南相天	돕다 하늘	擎仲	떠받들다 들췌	意同	序列
229	宋弘基	넓다 터	濟萬	구제하다 여러 사람	進就	
230	金 璋	옥	公準	공정하다 범, 모범	進就	
231	李忠國	충성 나라	孝而	효도 허사	經在	虛辭
232	李長泰	길다 편안하다	貞叔	곧다 차례가 셋째이다	意同	序列
233	金應濂	응할 응, 청렴할 림	聖希	성인 바라다	進就	
234	李憲默	범 잠잠하다	伯容	만이 포용하다	序列	進就
235	李碩九	크다 아홉	成汝	이루다 너	進就	美稱
236	李世澤	인간 윤택하다	孟潤	만이 윤택하다	序列	意同
237	鄭錫台	주다 별	晉卿	나아가다 남자, 그대	意同	美稱
238	李 級	등급 급	子明	그대 밝다	美稱	進就
239	金宅礪	집 숫돌	用汝	쓰다 너	進就	美稱
240	南錫老	주다 늙다	伯輝	만이 빛나다	序列	進就

	이름	의미	字	의미	作字傾向	
241	金履常	밟다 떳떳하다	懋叔	힘쓰다 차례가 셋째이다	進就	序列
242	李時逸	때 편안하다	敬安	공경하다 평안하다	意同	
243	安景說	크다 기뻐하다	殷老	많다 노인	謙虛	
244	南龍見	용 나타나다	德中	덕 중용	經在	
245	權正忱	바르다 정성	子誠	그대 정성	美稱	意同
246	李光培	빛 복돌우다	實之	성실하다 그것	意同	虛辭
247	金宗九	으뜸 아홉	天成	하늘 이루다	意同	
248	申宅和	집 화목하다	子?			
249	李晚榮	늦다 영화롭다	德彦	덕 선비	意同	美稱
250	趙進道	나아가다 도	聖與	성인 주다, 되다	進就	
251	成彦楸	선비 모이다	用汝	쓰다 너	進就	指稱
252	宋東胤	동넉 잇는다	夏承	하나라 계승하다	經在	
253	任玉	구슬	汝成	너 이루다	指稱	進就
254	金養根	기르다 뿌리	善五	선하다 다섯	進就	
255	孫錫謨	주다 피하다	士顯	미혼 남자 드러나다	美稱	進就
256	權應奎	응하다 별	伯宗	말이 으뜸	序列	意同
257	金若龜	같다 거북	順則	따르다 범칙	謙虛	
258	姜錫龜	주다 거북	洛瑞	물 이름, 상서롭다	意同	
259	李鼎揆	술 정, 헤아릴 규	公宅	공정하다 집	進就	
260	金尙敏	숭상하다 민첩하다	子行	그대 행실	美稱	進就

	이름	뜻	字	뜻	作字傾向	
261	柳 榑	나무 줄지어 서다	建中	세우다 가운데, 증용	進就	
262	鄭衡臣	저울대 신하	德彦	덕 선비	進就	美稱
263	安景漸	빛나다 점차	正進	바르다 나아가다	意同	
264	金振久	떨칠다 오래다	而玉	허사 구슬	虛辭	進就
265	洪?		清仲	맑다 둘째		
266	李敬裕	공경하다 넉넉하다	義來	뜻 오다	進就	
267	朴天行	하늘 다니다	汝健	너 굳세다	指稱	意同
268	南基萬	터 일만	伯溫	말이 따뜻하다	美稱	謙虛
269	金若鍛	같다, 순하다 단련하다	幼成	어리다 이루다	意同	
270	李 垠	작은 술잔	致道	이르다 도	進就	
271	金宗敬	으뜸 공경하다	直甫	곧을 직 사내 보	謙虛	美稱

<부록2> 교남과방록 권3 字가 수록된 합격자 명단(정조1776-고종1906)

번호	이름	字	번호	이름	字
1	李萬運	希元	31	鄭渤	淑潤
2	金宗發	景蘊	32	金直	敬之
3	南景義	仲殷	33	禹錫龜	宗瑞
4	金鯉吉	君成	34	柳相祚	爾敬
5	南述毅	繼初	35	柳台佐	士鉉
6	金驥燦	德汝	36	孫錫祉	士憲
7	權應範	益謙	37	崔仁簡	義甫
8	金聲應	元開	38	李義發	又文
9	李鎮宅	養重	39	金魯範	景默
10	鄭來成	岐瑞	40	朴時源	穉實
11	權文度	士雅	41	辛碩林	文瞻
12	崔壁	仲蘊	42	李世伯	玉瑞
13	李東仁	榮叔	43	朴慶九	鼎凝
14	李鼎德	象汝	44	鄭若琇	孟晉
15	朴顯輔	子相	45	李奎鎮	而拱
16	孫會慶	聖除	46	金尙元	善長
17	宋應望	汝瞻	47	李泰淳	來卿
18	李龜雲	應瑞	48	李在嵩	永?
19	洪宅夏	華老	49	趙德	希大
20	李鼎秉	彝執	50	金虎振	文威
21	鄭穰	叔薰	51	張龍八	伯鷹
22	金翰東	翰之	52	孫興祖	昌叔
23	金永弼	忠可	53	崔道彬	文應
24	柳之源	復初	54	李彥淳	景寬
25	李瑛	時應	55	金永範	叔一
26	沈能變	聖和	56	李以敬	而亨
27	李覲吾	聖應	57	申冕周	成之
28	李鼎牧	九甫	58	柳致明	誠伯
29	姜學濬	聖翼	59	李同淳	義卿
30	崔啓連	聖會	60	黃替熙	襄之

번호	이름	字	번호	이름	字
61	李相龍	舜輔	91	李肇運	穉?
62	李鎬	聖鎔	92	河錫洪	聖則
63	李永祚	周賢	93	金瑞	孟輯
64	金樂周	聖有	94	金相稷	周老
65	李時獻	弼聖	95	金龍洛	彦起
66	禹錫簡	子徵	96	李孝淳	源百
67	張鳳周	遇文	97	李鏞	夢汝
68	李元祥	善長	98	朴龍天	聖執
69	李東旭	惠之	99	鄭象樞	致拱
70	李家淳	學源	100	金斗明	伯圓
71	崔昇羽	士達	101	都寅曄	德章
72	鄭煥義	亨汝	102	金樂淵	士能
73	成文璣	士琦	103	李秉瑩	聖實
74	成奎弼	文徵	104	李在直	養仲
75	趙熙龍	和叔	105	黃起源	夏言
76	禹夏哲	允明	106	李在翊	用祐
77	柳致陸	定五	107	孫相昊	進若
78	李東翰	君翊	108	李晚奎	景休
79	朴基旭	曉汝	109	趙準孝	聖源
80	鄭蓋	念祖	110	李綱峻	稚三
81	權達準	公立	111	鄭裕榮	季仁
82	禹錫文	子成	112	李攸秀	謹之
83	孫 懌	公世	113	白海運	德老
84	李益文	士謙	114	李彙圭	心受
85	徐洛淳	仁叟	115	李晉祥	魯伯
86	柳璧祚	玉成	116	金鎮右	國兄
87	金希呂	士亨	117	辛志鼎	性養
88	趙彥國	弼大	118	金경?	徵遠
89	宋台霖	君八	119	金重夏	穉常
90	李淵祥	亨愚	120	權致和	子猷

번호	이름	字	번호	이름	字
121	金義裕	敬五	151	李彙承	擎天
122	金在權	文吉	152	黃仁夏	幼善
123	李凝祥	士安	153	李彙秉	文則
124	金錫熙	敬可	154	張膺杓	應七
125	崔斗錫	景受	155	郭泰魯	響遠
126	李命允	致福	156	李翔峻	天路
127	張仁遠	公武	157	金奎運	景會
128	李在立	子華	158	金鎮衡	德鍾
129	石基坤	德履	159	權翰成	翼甫
130	柳道海	宗源	160	李擎日	暎長
131	朴光立	德甫	161	權泳夏	聖游
132	孫相駟	善一	162	崔鶴昇	聲彥
133	金達淵	而浩	163	權道臬	茹卿
134	朴齊淵	聖源	164	曹錫萬	慶年
135	李在澣	季鵬	165	柳致鎬	季好
136	李好亨	學仲	166	張錫駿	見可
137	孫永老	穉石	167	李應模	景休
138	金鎮河	穉清	168	孫昊翼	致玄
139	李基東	景章	169	權仁成	贊壽
140	柳光陸	謙叟	170	金?	致準
141	李秉欽	安叟	171	李啓魯	聖建
142	裴相奎	致文	172	李彙林	平叟
143	宋潤灝	聖淳	173	權魯淵	聖源
144	丁集教	成彥	174	李晚滢	揚叟
145	柳進翰	景奭	175	李承德	明吉
146	李晚運	文五	176	李彙濬	深父
147	李晚德	日休	177	柳芝榮	仲雍
148	權教準	遠可	178	柳厚祚	再可
149	李能燮	公理	179	李在原	孝善
150	鄭東奎	明瑞	180	鄭勛錫	芝叟

번호	이름	字	번호	이름	字
181	李在圭	瑞可	211	車正緯	平執
182	李晩由	道汝	212	權載喆	致吉
183	李有魯	聖若	213	權仁龍	瑞一
184	權好淵	希顔	214	李晩魯	仲連
185	李祐三	而說	215	朴明壽	道年
186	千駟成	士彦	216	張仁煥	致安
187	鄭在晉	舜則	217	金羽永	景成
188	金章漢	聖欽	218	洪正厚	穉承
189	張晉遠	康叟	219	柳道緯	文可
190	柳道昌	文汝	220	李晩鉉	英玉
191	柳章鎬	伯憲	221	盧泳敬	景涵
192	鄭友鉉	應文	222	權博淵	孟見
193	許杓	舜弼	223	李中彦	仲寬
194	張原相	學夫	224	鄭國鉉	元瑞
195	李能華	而觀	225	卞應洙	汝계
196	金養默	義悅	226	李中斗	運卿
197	趙熙重	成七	227	盧相益	致三
198	崔溶	氣然	228	金炳淵	景元
199	金龜洛	錫夏	229	金鎮懿	美卿
200	張錫然	陽仲	230	李龜相	穉登
201	李晩燾	觀必	231	鄭佑默	天必
202	洪載順	應汝	232	李晩正	啓衍
203	權景直	汝行	233	李晩燿	順則
204	李晩容	景燁	234	權錫洛	禹若
205	趙述大	準堯	235	具然鎬	奉圭
206	盧應吉	可燁	236	張錫裕	晦伯
207	趙在斗	孟仁	237	朴時奎	聖章
208	李鉉亨	乃玉	238	鄭宜默	孟齊
209	李康勳	泰汝	239	張承遠	孔有
210	都錫燾	和應	240	安孝轍	致道

번호	이름	字	번호	이름	字
241	金載善	德老	261	孫耆永	敬規
242	李章燮	理一	262	權玉淵	敬德
243	崔圭升	聖可	263	梁在八	武興
244	李中久	正甫	264	鄭夏默	誠進
245	李能馥	景由	265	千光祿	華善
246	金輝炳	士均	266	權有夏	大淑
247	張紀淵	祚元	267	李琦浩	學卿
248	鄭淳元	乃亨	268	張錫蓋	舜鳴
249	康始甲	元一	269	車永翰	鴻遠
250	高溶	禹成	270	金鴻洛	羽卿
251	尹夏一	聖莘	271	李錫瑄	晉玉
252	鄭玆	泰螢	272	鄭允中	曙天
253	朴尙範	繼舜	273	李晚耆	德老
254	張有相	道勤	274	李晚松	公茂
255	鄭在教	聲繪			
256	鄭漢鎮	尙魯			
257	黃樂成	允顯			
258	趙瑩奎	泰見			
259	金錫源	順八			
260	李中泰	聖登			



<부록3> 字에 사용된 단어 빈도순

순서	글자	의미	빈도	순서	글자	의미	빈도
1	聖	성인	28	21	則	본받다	8
2	景	경사스럽다	22	22	一	처음, 오로지	8
3	德	크다	19	23	亨	형통하다	8
4	士	선비	18	24	章	크다	8
5	文	글월	17	25	致	이르다	8
6	瑞	경사스럽다	13	26	稚	어리다	7
7	成	이루다	13	27	和	화합하다	6
8	善	착하다	12	28	瞻	우리러 보다	6
9	應	응하다	11	29	君	임군	6
10	天	하늘	10	30	實	가득차다	6
11	叟	늙은이	10	31	元	으뜸, 근본	6
12	可	옳다	10	32	休	쉬다	6
13	敬	공경	9	33	老	늙다	6
14	源	근원	9	34	謙	겸손	5
15	大	크다	9	35	重	무겁다	5
16	明	밝다	9	36	萬	일만	5
17	遠	멀다	9	37	正	바르다	5
18	玉	옥	8	38	宅	집	5
19	公	공적	8	39	華	꽃	5
20	道	도리	8	40	安	편안	5

순서	글자	의미	빈도	순서	글자	의미	빈도
41	順	따르다	5	61	容	얼굴	3
42	微	부르다	5	62	平	평평하다	3
43	舜	순임금	5	63	國	나라	3
44	中	가운데	4	64	深	깊다	3
45	輝	빛나다	4	65	承	계승하다	3
46	宗	으뜸	4	66	興	일어나다	3
47	世	세상	4	67	顯	드러나다	3
48	學	배우다	4	68	與	주다	3
49	吉	길하다	4	69	直	곧다	3
50	用	쓰다	4	70	行	행하다	3
51	觀	보다	4	71	若	같다	3
52	五	다섯	4	72	見	보다	3
53	會	모이다	4	73	夏	하 나라	3
54	仁	어질다	4	74	進	나아가다	3
55	泰	크다	4	75	魯	노나라	3
56	義	옳다	3	76	立	서다	3
57	晉	나아가다	3	77	周	두루	3
58	誠	정성	3	78	晦	어리석다	3
59	翼	날개	3	79	游	놀다	3
60	孝	효도	3	80	允	진실로	3

순서	글자	의미	빈도	순서	글자	의미	빈도
81	希	바라다	3	101	秀	빼어나다	2
82	裕	넉넉하다	3	102	錫	크다	2
83	能	능하다	3	103	宇	집	2
84	執	잡다	3	104	永	오래	2
85	七	일곱	3	105	寬	너그럽다	2
86	時	때	3	106	運	돌다	2
87	克	능하다	3	107	啓	열다	2
88	久	오래다	2	108	繼	잇다	2
89	年	해	2	109	登	오르다	2
90	定	정하다	2	110	聲	소리	2
91	龍	용	2	111	玄	검다	2
92	來	오다	2	112	有	있다	2
93	兼	겸하다	2	113	輔	돕다	2
94	健	튼튼하다	2	114	元	으뜸	2
95	祥	상스럽다	2	115	三	거듭	2
96	望	바라다	2	116	然	분명하다	2
97	鳴	명성을날리다	2	117	養	기르다	2
98	幼	어리다	2	118	濟	건너다	2
99	準	표준	2	119	八	여덟	2
100	履	밟다	2	120	必	반드시	2

순서	글자	의미	빈도	순서	글자	의미	빈도
121	燁	빛나다	2	141	相	돕다	1
122	擎	들다	2	142	期	기대하다	1
123	愼	삼가하다	2	143	謹	삼가하다	1
124	巨	크다	2	144	心	마음	1
125	百	일백	2	145	雍	온화하다	1
126	昂	밝다	2	146	開	열다	1
127	九	아홉	1	147	岐	갈림길	1
128	祐	돕다	1	148	圓	둥글다	1
129	斐	돕다	1	149	器	그릇	1
130	光	빛	1	150	升	오르다	1
131	太	크다	1	151	欽	공경하다	1
132	蘇	소생하다	1	152	鍊	단련하다	1
133	建	세우다	1	153	綏	편안하다	1
134	珍	보배	1	154	榮	영화롭다	1
135	輯	모우다	1	155	性	성품	1
136	思	생각	1	156	楷	본보기	1
137	昭	밝다	1	157	芝	지초	1
138	厚	두텁다	1	158	顏	얼굴	1
139	滋	번성하다	1	159	彞	땃땃하다	1
140	守	지키다	1	160	翰	날개	1

순서	글자	의미	빈도	순서	글자	의미	빈도
161	經	경전	1	181	達	통달하다	1
162	粹	순수하다	1	182	鉉	삼공의지위	1
163	禮	예도	1	183	睹	분별하다	1
164	遵	좃다	1	184	少	적다	1
165	吉	길하다	1	185	祈	빌다	1
166	山	되	1	186	孔	크다	1
167	琦	뛰어나다	1	187	秋	가을	1
168	述	짓다	1	188	均	고르다	1
169	台	별	1	189	圭	서옥	1
170	機	기틀	1	190	星	별	1
171	欽	공경하다	1	191	仕	벼슬하다	1
172	達	길거리	1	192	衍	넘치다	1
173	寅	범	1	193	寶	보배	1
174	氣	기운	1	194	惠	은혜	1
175	後	뒤	1	195	勤	부지런하다	1
176	維	벼리	1	196	曉	새벽	1
177	傑	뛰어나다	1	197	心	마음	1
178	得	얻다	1	198	準	고르다	1
179	東	동녘	1	199	貞	곧다	1
180	宋	송나라	1	200	規	범	1

순서	글자	의미	빈도	순서	글자	의미	빈도
201	懋	힘쓰다	1	221	在	존재하다	1
202	呈	드리다	1	222	羽	깃	1
203	來	부르다	1	223	皞	밝다	1
204	洛	강이름	1	224	悅	기쁘다	1
205	路	지위	1	225	鷹	송골매	1
206	里	헤아리다	1	226	默	잠잠하다	1
207	雷	빠른 모양	1	227	昌	창성하다	1
208	濫	따뜻하다	1	228	餘	남다	1
209	禹	우임금	1	229	濟	건너다	1
210	敵	맞서다	1	230	原	근원	1
211	枉	굽다	1	231	奘	크다	1
212	俊	뛰어나다	1	232	日	날	1
213	擧	들다	1	233	理	다스리다	1
214	雨	비	1	234	暎	밝다	1
215	質	바탕	1	235	好	좋다	1
216	任	맡기다	1	236	康	편안하다	1
217	眉	눈썹	1	237	襄	돕다	1
218	師	스승	1	238	憲	범	1
219	由	말미암다	1	239	淳	순박하다	1
220	開	열다	1	240	揚	오르다	1

순서	글자	뜻	빈도	순서	글자	뜻	빈도
241	茹	부드럽다	1	262	忠	충성	1
242	無	없다	1	263	理	다스리다	1
243	中	가운데	1	264	言	말씀	1
244	聞	듣다	1	265	殷	은나라	1
245	起	일어나다	1	266	益	더하다	1
246	茂	무성하다	1	267	晉	나아가다	1
247	福	복	1	268	差	다르다	1
248	奉	받들다	1	269	千	일천	1
249	尙	오히려	1	270	錘	저울추	1
250	受	받다	1	271	贊	돕다	1
251	石	돌	1	272	除	덜다	1
252	說	말씀	1	273	祖	할아버지	1
253	衍	넓다	1	274	賢	어질다	1
254	連	이어지다	1	275	鉉	재상	1
255	英	채주가뛰어나다	1	276	曦	햇빛	1
256	若	같다	1	277	響	울리다	1
257	雍	화목하다	1	278	兄	형	1
258	如	같다	1	279	憲	법	1
259	雲	구름	1	280	堯	요임금	1
260	鎔	녹이다	1	281	螢	반딧불	1
261	繪	그림	1	282	鴻	번성할	1

<부록4> 2012년 9월 2일 구계서원에서 올린 冠禮 字辭

字辭 張赫峻 世峻 張赫珍 世珍

癸冬予之一行 千字文講究時 張漢植會長 與子兄弟枉顧安否 若問安之事 張會長獨行 未知其子同行之意也 此後得聞事緣 兄弟冠禮之事也 數日後 請其子兩君 作字兼請冠賓 予老矣 學問之荒落也 文脈之蹇澁也 言辭而不分明 對談而未底蘊 予何由塞其責 然張會長之役 禮節院樞機 且夫婦心血傾注 特壯立院 不爲非積功 不爲非舊 又今之彼此 其情油然而 何謝謙乎 兒輩 峻嚴庭訓 慈母之情 自幼人性 和睦家庭 得誠成育也 其兄峻赫君 諸學習得 有念公認會計及法學 其志四海頒布 其弟赫珍君 蒼空萬里 鋪男氣概 愛國萬邦 可謂蓋世也 故其字曰世峻 世珍也

赫峻 赫珍乎

古語 川淵深而魚鱉歸之 山林茂而禽獸歸之 人厚德而衆人歸之 禮義備而君子歸之 故禮及身而行修 心不使焉 則白黑在前而目不見 雷鼓在側而耳不聞 聖人 知心術之患 見蔽塞之禍 人何以知道 曰心 心何以知 曰虛壹而靜 然心自招爲蔽也 其例 欲爲蔽 惡爲蔽 始爲蔽 終爲蔽 遠爲蔽 近爲蔽 博爲蔽 淺爲蔽 古爲蔽 今爲蔽 凡萬物異則莫不相爲蔽 此心術之公患也 故察世心 銘心字義 敬之戒之

壬辰 涼月 十六日

一川 李東厚

지난 겨울 우리 일행이 천자문 공부를 할 때 張漢植회장이 아들 형제와 함께 오셔서 안부를 하기에 만약 문안의 일이라면 장회장이 혼자 올 터인데 그 아들과 동행하는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 사연을 듣고 보니 형제 관례하는 일이었다. 얼마 뒤 두 아들의 자를 짓고 관례 빈을 해 달라고 청하니, 내가 이미 늙은 몸으로, 학문도 거칠고 볼품이 없고 文脈도 자꾸 막히고 매끄럽지 못하여, 하는 말은 분명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해도 철저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그 기대에 따라 응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장회장의 하는 일은 예절원의 중추이며 또 부부가 심혈을 기울여 예절원을 우뚝 서게 하고, 지난 인연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지금 나와 그 사람과 서로 무척 정감이 넘치게 대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양할 수 있겠는가? 이 들은



엄한 아버지 가르침과 자애스런 어머니 정으로 어릴 때부터 인성과 가정의 화목함을 정성껏 받고 자랐다. 형준 혁군은 여러 면으로 공부를 하고 공인 회계와 법합에 관심을 가져 그 뜻을 사해에 널리 펴고자 하며 그 아우 혁진군은 창공 만리에 사나이 기개를 펴고 온 천하에 애국을 할 것이니 가위 세상을 덮을 만하다 그러므로 그 字를 世峻世珍이라 한다.

赫峻 赫珍아

옛말에 냇물이나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고 한다. 그러므로 들고, 산이나 숲이 무성하면 새와 짐승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사람이 후덕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의가 잘 갖추어 있으면 군자들이 모여든다. 그러므로 예의가 몸에 갖추어지면 행실이 잘 닦여진다.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회고 검은 것이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눈은 보지를 못하고, 천둥소리·북소리가 옆에서 들린다 하더라도 그의 귀는 듣지 못한다.

성인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는 술법에서 환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마음이 가려져 막힘으로써 생기는 화를 통찰한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도를 아는가? 그것은 마음으로 알 수 있다. 마음은 어떻게 도를 아는가? 그것은 마음이 텅 비고 한결같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가려짐을 스스로 몰러온다. 욕심에 가려지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가려지기도 하며,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일을 끝낸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며, 멀리 있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가까이 있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며, 넓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알다는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며, 옛 것의 생각에 가려지기도 하고, 지금의 생각에 가려지기도 한다.

모든 만물은 서로 다른 한편만을 생각하니 서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마음을 쓰는 술법의 공공연한 걱정이다. 그러니 세상인심을 살피며 자의 뜻을 깊이 새겨 공경하고 경계하여라.

壬辰 陰 七月 十六日

一川 李東厚

MA Thesis

A study on Korean tradition using Ja  
and its modern utilization.

Song Mi-wha

Major in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Advised by Professor Song Pyung-nyu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anguage used to describe 'Ja', the name given to a young man after participating in 'Kwanlye', the traditional Confucian coming-of-age ceremony, and the meanings of 'Ja-sa' or 'Ja-seol' that further explain the implications and instructions associated with 'Ja', thus suggesting to young people the ideal type of man (or woman) based on the ideal scholar in the Chosun Dynasty. Moreover,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pirit of the traditional 'Kwanlye' ceremony (for boys) and 'Keilye' ceremony (for girls) with modern coming-of-age celebrations and investigate ways of utilizing the

two traditional ceremonies in modern times, in which the profound meanings of 'Ja' and 'Ja-sa' or 'Ja-seol' are communicated.

The fou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 A close look at the 'Gyonamgwabangrok', the lists of people who passed the classical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the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middle and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1603-1905 A.D.) revealed that 54 percent of all who passed the examination used the name 'Ja'. That indicates that nearly half on the list neither participated in the traditional 'Kwanlye' ceremony nor were given the name 'Ja' and 'Ja-seol', though they had attained the required age to apply for the examin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Ja' status of the those who passed the exam, it was determined that 'Ja' held the same meaning as the person's real name, and most of names and the associated 'Ja' indicated the young peoples' considerate practice after reflecting on the meanings their name and 'Ja', (b) A further review of those who passed the aforementioned civil service examination, disclosed that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 was 'Sung' (a sage), followed by 'Moon' (literary arts), 'Gyung' (generosity), 'Sa' (scholar), and 'Duk' (virtue). These words illustrate that a sage or a saint is the ideal type of man in Confucian philosophy, and the word 'Ja' functions as the suggested overall guidelines for life and the ideal a classical scholar should emulate; (c) Almost no difference could be detected between the moral values of the Chosun dynasty and those of modern society. Moreover, the 'Ja' tradition in the Chosun dynasty functioned as a decisive component in character education in which the elders suggested the ideal type of man based on Confucian ideas and this concept was internalized with the help of 'Ja-sa' or

'Ja-seol'; and (d) Modern utilization of 'Ja' could include elders bestowing the new name of 'Ja' on young people through the Kwanlye or Keilye ceremonies in order to transmit its significant meaning. Furthermore, by giving the name 'Ja' to teenagers with the addition of 'Ja-sa' or 'Ja-seol', the elders would pass on to the young people the important values and norms to keep in mind and put into practice in their lifetim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traditional Kwanlye ceremony in modern families holds great significance in celebrating young people's coming of age. This ceremony can lead a young man or woman to set his or her own life goals and establish their identity. Furthermore, the role of a Bin (an officiate) implies a lifetime mentorship to a young man or woman.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cessity to reconsider the value of a coming-of-age celebration, focusing on the role of the family and parents' recognition of their sons and daughters as significant members of the family. A coming-of-age celebration is not only a rite of passage, but is also a public banquet involving the whole family or clan where membership is formally given to a young man or woman to welcome them as responsible member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celebration, the elders would ask the young man or woman to be of strong character throughout his or her lifetime, and to realize they are valuable representatives of the family.

Further researches and practices should focus on the modern revival of the traditional 'Kwanlye' ceremony based on the modern reconstruction of 'Ja-sa' or 'Ja-seol' in order to strengthen character education and establish sound laws and order in our society.